

목회학박사

학위논문 작성법

Spring 2026 Edi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THEOLOGY

Korean Doctor of Ministry

목 차

제 1 장 서론: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의 이해	1
제 2 장 논문과 졸업행정 절차	3
제 3 장 논문 작성법	14
제 4 장 논문 양식	26
논문양식 매뉴얼	30

부록

1. 논문작성 방법론에 관한 참고도서	57
2. 졸업논문 제출 타임라인	59
3. 논문제안서 자가진단법	60
4. 논문작성 자가진단법	61
7. 논문작성관련 학칙 안내 (학생용)	62
8. 논문지도서	66
9. 논문평가서	67

제 1 장

서론: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의 이해

현대 목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정보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된다. 이와 같은 지식과 정보의 확장은 사회와 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교회 안의 회중들 역시 이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목회적 상황에서 3년 간의 목회학석사(Master of Divinity) 과정 교육만으로 일생을 목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목회학박사(Doctor of Ministry) 과정은 현대 목회자의 연장교육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전문학위 프로그램이다. 목회학박사 학위는 기본 성격상 신학자가 되기 위한 학술적 학위(academic degree)가 아니라 의사나 법조인, 교육가들을 위한 M.D., J.D., Ed.D.와 같은 계열의, 목회라는 전문 영역에 관한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학위(professional degree)로서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필요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은 목회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현장 분석을 통하여 탁월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북미신학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는 목회학박사 학위의 목적을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가지고 목회지도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목회의 실천적 능력을 향상(enhance)시키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목회의 본질과 목적들에 대한 향상된 이해, 목회적 분석과 목회 기술의 향상된 능력, 목회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현장적 필요의 종합, 목회의 실천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 그리고 영적 성숙”을 실질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과정은 다양한 전문적 강의를 코스웍으로 이수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은 “목회의 본질과 실천의 양면을 논의하는 박사수준의 프로젝트”로서 “전문가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목회의 실천에 기여하여야 하며 다른 목회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해야 하며, “목회의 특별한 신학적 주제를 명시하고, 효과적인 리서치 모델을 형성하며, 적당한 자료들을 사용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목회와 관련된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목회학박사 과정은 그 기본 성격상 목회사역 중에(in-ministry)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주제를 발견하고 목회현장을 배경으로 작성되고 목회현장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제 2 장 논문과 졸업행정 절차

1. 개관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졸업논문 워킹(DM748: Final Project Research Methods and Proposal)을 등록 수강하고 논문제안서 패키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논문제안서 패키지는 매월 개최되는 Executive Committee에서 심사하여 기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경우 지도교수(주심)를 배정한다. 제안서에 대해 지도교수가 심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학생은 지도에 따라 제안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여 이에 대해 지도교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확정된 목차를 따라 각 장을 구성해야 하며 논문제안서 심사 및 수정 지도를 포함하여 총 6회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 논문을 완성하여 논문완성본 초본(First Draft)을 본 프로그램의 사무실에 제출하면 주심 평가를 받게 된다. 주심의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논문 수정본(Revised Draft)을 제출해야 하며 주심이 이 수정본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하는 경우 부심 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부심 평가에서 수정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수정을 한 논문 최종본(Final Draft)을 제출해야 하며 이 최종본에 대해 부심이 최종 승인하는 경우 문체교정(style editing)과 양식교정(format editing)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본 프로그램의 졸업담당자가 제본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졌음을 최종 확인할 경우 논문은 제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논문 및 졸업 관련 학사행정은 본 프로그램의 논문업무관장교수(Theological Mentor)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

졸업논문 워킹에서 학위수여식에 이르는 모든 논문 과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논문업무관장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논문작성과 졸업 행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과사데나사무실(626-584-5651)로 문의하면 된다.

2. 논문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

졸업논문은 리서치와 작성, 그리고 프로젝트나 전략의 적용 및 검증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 기간을 최소한 2-3년 정도로 여유 있게 잡고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논문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Regular student로 입학한 경우)

- (1) 첫째, 졸업논문 워샵(DM748: 2학점)을 등록 수강하고 논문제안서를 교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둘째, 코스웍 24학점 이상에 대해 졸업에 유효한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평점(GPA)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입학허가시 추가학점을 요구받은 경우 이 추가학점에 대해서도 졸업에 유효한 학점을 받아야 한다 (B-는 하나만 허용된다. 2과목 이상에 대해 B-나 F를 받는 경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 (3) 셋째, 졸업논문(DM746: 6학점)을 등록한다.

3. 졸업논문 워샵(DM 748: Final Project Research Methods and Proposal)

논문을 시작하는 첫번째 관문은 졸업논문 워샵을 등록 수강하는 것이다. 졸업 논문 워샵은 온라인 (10주)으로 매 쿼터마다 개설된다.

논문워샵은 2010년 겨울쿼터부터 2학점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 여름쿼터까지는 2010년 1월 이전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0학점 등록을 허락하나 2011년 가을쿼터 부터는 입학시점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이 과목을 2학점으로 등록하게 된다.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본인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에 대해 구상하는 것이 유익하다. 주제가 정해지면, 수업을 통해 단계별로 논문 제안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논문워샵이 끝난 후 정해진 양식을 따라 자신의 논문제안서 완성본을 제출해야 P(pass) 학점을 받게 된다.

4. 논문제안서 (Proposal) 제출

졸업논문을 등록하고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안서 패키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논문제안서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안서 커버 페이지 (논문 제목, 이름, 학번, 제출일)
- (2) 제안문 (5페이지)
 - 1) 주제
 - 2) 연구의 동기와 목적
 - 3) 연구의 의의
 - 4) 주요논지(thesis statement) 및 소논지
 - 5) 연구의 방법과 범위
 - 6) 연구의 개요 (장별 개요)
 - 7) 목차 (각 장마다 예상 페이지 분량 표기)
 - 8) 참고문헌 (비평하는 논문 이외에 엄선한 도서 및 연구서 40종 이상)
- (3) 논문제안서 체크리스트 (학생 본인이 각 항목 마다 체크하고 사인해야 함)

이상의 논문제안서는 전자파일로 사무실(kdmin@fuller.edu)로 제출해야 한다.
논문제안서의 자세한 작성 요령은 본서 제 3장을 보라.

논문제안서는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영어로 논문을 진행하기를 원할 경우 논문제안서 패키지의 모든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해야하며 Internet-based Test Score 82이상(Paper-based Test: 550)의 TOEFL 성적표사본(혹은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 공부하였음을 증명하는 봉인된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5. Korean Study Center Executive Committee

논문제안서는 KSC Executive Committee에 제출되어 기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지도교수를 배정하게 된다. 그러나 논문제안서가 기본 요건 미달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를 배정하지 않고 논문제안서의 수정보완 혹은 재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KSC Executive Committee는 특정한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매월 1회 개최된다.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본 과정의 전임교수와 논문업무관장교수가 맡게 되지만 해당 분야를 더 잘 지도할 수 있는 학자가 있을 경우 외부 교수에게 논문지도를 위촉할 수도 있다.

교수회의가 이미 지난 경우 다음 회의에서 논문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기까지 적어도 1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제안서에 대한 심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논문제안서를 **매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야만 한다.

논문제안서에 대한 교수회의 결정은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지도교수(주심) 배정에 대한 안내편지를 받는 경우 학생은 향후 지도교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논문제안서의 방향과 연구방법론, 범위, 목차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이후 논문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논문제안서를 재제출하도록 통보 받은 경우 논문 관장교수와 상담하여 논문제안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6. 졸업논문(DM746: DMin Final Project) 등록

논문제안서가 통과되면 졸업논문(DM746)을 등록할 수 있으며, 논문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정식으로 목회학박사 후보생(DMin candidate)이 된다. 논문웍샵을 이전 규정에 따라 0학점으로 수강한 경우 졸업논문을 8학점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논문 웍샵을 2학점으로 등록 수강한 경우 졸업논문을 6학점으로 등록하면 된다.

졸업논문은 대부분 Ministry Focus Paper로 승인된다. 그러나 논문이 연구의 깊이나 학문적, 실천적 가치가 탁월할 경우 이를 Dissertation으로 승인되기도 한다. 단, 논문 평가 단계에서 주심과 부심이 해당 논문을 Dissertation으로 추천해야 하며 한인목회학박사원 교수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논문 등록에는 6회 논문 지도 비용과 주부심 평가비 등 논문 지도 관련 경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안서 수정 작업이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수정 작업이 많아져서 논문지도 총 회수가 6회를 초과하는 경우나 지도를 몇 차례 받은 후에 주제를 변경 혹은 귀국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도교수를 새로 배정받아 논문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 이미 받은 지도 회수에 따른 지도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회당 80불).

7. 논문 작성

(1) 학생은 제출한 논문제안서에 대한 지도교수(주심) 배정을 안내하는 편지를 받는 대로 논문(DM746)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2 주 내로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 논문제안서의 수정과 논문 진행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논문지도는 보통 제안서에 대한 심사, 수정, 보완 작업부터 시작된다. 지도교수가 수정보완한 논문 제안서의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을 진행하되 제안서 지도 단계를 포함하여 총 지도회수가 6 회를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각 회의 지도는 제출한 부분에 대한 이메일, 우편 지도나 면담 지도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지도 간격의 균형을 위해 장(chapter)별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아직 논문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 분량은 30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학생은 매회 지도 후에는 지도 받은 내용을 논문지도서에 정리하여 지도교수와 논문업무관장교수에게 이메일 전송한다.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 별도의 수정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졸업논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과 지도교수는 본교 Catalog 이나 Student Handbook, 또는 본교의 웹사이트에 명시된 공동체규범, 특히 학문적 정직성 (Academic Integrity)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Http://www.fuller.edu/provost/aboutfuller/statements.htm](http://www.fuller.edu/provost/aboutfuller/statements.htm)

(3) 졸업논문은 그 내용과 양식에 있어서 본 과정이 발행한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작성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논문 내용에 대해 주심 평가와 부심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문체 교정(style editing)과 양식 교정 (format editing) 단계를 거치게 된다. 양식 교정에 드는 처음 4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4) 논문지도는 다음 3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1단계

지도교수(주심)는 먼저 교수회의가 지도를 의뢰한 논문제안서를 검토하고 1 차 지도에서 논문제안서의 방향과 세부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수정이 만족스럽게 이뤄진 경우 논문 진행을 허락한다. 그리고 논문 진행의 원칙과 구체적인 지도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2단계

학생은 확정된 목차에 따라 장별로 논문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제출된 부분에 대해 수정, 삭제 혹은 증보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수정이 미흡하게 이뤄진 경우 재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매번 지도를 마친 후에는 논문지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데, 먼저 학생에게 지도 받은 내용과 수정지시를 받은 사항을 번호를 매기며 기록하게 한 후 이를 지도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확인한 다음 서명해 준다.

3단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마지막 장까지 모두 완성하였고 지도교수가 평가를 위해 제출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학생은 논문 완성본 초본을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완성본은 주심 평가와 그에 따른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를 통해 제출된

수정본은 부심 평가와 그에 따른 수정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를 통해 제출된 최종본은 스타일과 양식 교정 단계를 거쳐 제본으로 넘겨지게 된다. 논문 승인서(Approval Sheet)의 사인 날짜는 부심 평가 통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논문지도는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장별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가 여러 장을 묶어 지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 원칙과 방향을 따르면 된다.) 학생은 논문지도 받은 후 논문지도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아 보관해 두었다가 논문업무관장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초본 제출 시에는 6 회 논문지도 받은 기록을 완성본 초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논문지도 과정에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성실히 잘 따라야 한다.

첫째, 학생은 지도교수를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제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논문의 논의에 있어서 지도교수의 학문적 권위를 존중하고 지도에 따라야 한다. 물론, 질문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언어와 태도에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도교수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논문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도교수가 논문 지도 이외에 분주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도를 받고자 할 때는 미리 일정을 약속하고 반드시 그 일정을 지켜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논문 지도는 한번에 두시간 한도에서 6 회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균형 있게 6 회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간격이나 방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르되, 대개 한 장이 완성되면 초안을 제출하고 약속을 정하여 지도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본문을 먼저 읽고 지도할 수 있도록, 논문지도 받기 전에 지도 받을 부분을 면담 지도나 이메일 지도를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최소한 2주 전까지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야 한다.

8. 졸업논문 제출

(1) 매년 6 월 두번째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열리는 본 프로그램의

후드수여식과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논문 완성본(초본)과 지도교수의 논문지도서 사본을 같은 해 2월 1 일까지 과사데나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심 평가기간은 3주 정도 주어진다. 주심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심이 수정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음을 판단하는 경우 수정본은 부심에게 인계되어 평가를 받게 된다.

(2) 주심평가를 위해 논문의 초본을 제출한 학생은 졸업신청서 제출 자격이 주어진다. 여름 졸업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졸업신청서를 해당 년도 3월 1 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3) 수정본에 대해 부심이 수정요구를 한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한 논문 최종본을 수정보고서와 함께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부심이 수정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경우 논문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 최종본은 스타일 에디팅 단계로 넘겨지게 된다. 최종본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논문 최종본 파일

(b) 부심평가에 따른 수정보고서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c) 주심에게 6 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았을 경우 추가 논문지도비 (1 회당 80 불)

(4) 논문 최종본은 제본될 논문에 들어갈 내용 일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작성 양식은 본서 제4장을 보라.

1) 표지(Title Page)

표지는 영문과 한글과 각각 1장씩 작성해야 한다.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반영하는 함축적 언어로 기술하여야 한다. 너무 길거나 내용을 과대포장하거나 학위논문에 부적절한 제목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에 대한 연구(A Study in...)”와 같이 상투적인 어구는 생략하고 논문의 독특한 내용과 차별화된 논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 제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되 평가단계와 에디팅 단계에서 수정될 수 있다.

2) 논문 승인서(Approval Sheet)

논문 승인서는 주심(지도교수)과 부심,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원장이 논문의 통과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서명 양식으로 본 프로그램의 소정 양식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한다.

3) 논문 초록(Abstract)

본교의 모든 학위논문은 레터 사이즈로 2 페이지 정도의 영문 초록(abstract)을 실어야 한다. 초록에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논지, 연구의 개요(각 장의 개요), 연구 결과와 의의 등에 대한 진술이 담겨야 한다. 한글로 2 페이지 분량의 초록을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영문 번역 및 에디팅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초록의 첫 머리에는 논문의 영문 제목, 저자, 학위, 졸업 예상 년도, 대학원 명칭 등을 기록한다.

Abstract

A Strategy for Assimilating New Members at Brookings

Presbyterian Church Chul Soo Kim

Doctor of

Ministry 200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지도교수의 이름은 아래와 같이 초록의 마지막에 기입하면

된다.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D

Yea Sun Eum Kim,

DrSocSci Seyoon Kim,

PhD

4)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감사의 글은 반드시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교수, 가족, 친지, 동료등이 연구를 위해도와 준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것이 관례다. 또한 연구를 위해서 특별히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었거나, 자신이 그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기관, 또는 본 연구를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교회나 개인도 이 글에서 언급하는 것이 좋다. 길이는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참고 문헌(Bibliography)

논문을 작성하는 데 관련된 모든 도서목록 및 연구자료를 정리하는데, 한국 저자는 가나다순 양서 저자는 알파벳 순으로 열거한다. 국문서적과 번역서적, 외국서적 등 참고문헌의 성격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문헌에는 논문을 작성하는 데 실제로 참고하고 각주에 인용한 문헌만을 열거한다.

6) 이력서(Vita)

이력서에는 학생 자신의 성명, 출생지, 출생 년월일, 학력(대학부터 현재까지 학교명과 학위 및 년도), 경력(교회 및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각종 기독교, 비기독교 기관들을 년도 순으로 기록), 가족사항(배우자 및 자녀들의 이름), 수상경력, 현재의 직책과 소속 교회 및 교파를 명시하며, 영문으로 작성한다.

9. 논문의 심사와 승인

학생이 지도교수(주심)의 지도 하에 완성하여 제출한 논문완성본 초본(DF1)은 주심평가를 받게 된다. 통과 점수가 나올 경우에라도 수정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수정본(DF2)을 수정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심이 수정본에 대해 승인하는 경우 이 수정본에 대해 부심평가를 받게 한다. 부심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 학생은 주심과 상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최종본을 수정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심이 수정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승인하는 경우 부심평가에서 최종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생이 제출한 최종본(DF3)은 문체 교정과 양식 교정을 거쳐 제본 단계로 넘겨지게 된다. 일단 최종본이 제출된 이후에는 문체와 양식 교정을 제외한 논문의 내용 수정은 허락되지 않는다.

10. 논문 최종본의 제본

더 이상 제본용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1. 졸업과 학위 수여식(Commencement)

(1) 본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논문이 승인되어 최종본을 제출하면 졸업식에 참석하고 풀러신학교 목회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졸업요건은 네 가지로, 첫째 40학점의 세미나를 등록하여 수강하고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점(GPA)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B학점에 미달 되는 학점은 1과목만 허용된다 (F의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B-가 1개인 경우 여전히 졸업학점으로 인정된다). 추가학점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40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경언어 학점의 경우 입학사정회 때의 결과에 따라 40학점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꼭 입학허가 편지(admission letter)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졸업신청서(Application for Graduation)를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한다. 만약 여름쿼터에 열리는 졸업 및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기 원하면 해당 년도의 3월 1일 이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무리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갖췄을지라도 졸업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고, 학위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셋째, 졸업논문을 완성하고 주심과 부심의 지도와 심사에 통과되어 승인된 논문 최종본이 완성되어야 한다.

넷째, 본 과정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2) 풀러신학교는 4학기제(Quarter System)로서, 개인의 논문 완성과 졸업신청서 제출일자에 따라 졸업일자가 결정된다. 학위는 매 학기마다 (9월, 12월, 3월, 6월) 수여되며, 학위는 학기가 끝난 후 8-10주 안에 성적표에 기입되고, 그 후에 학위증이 본인에게 우송된다. 학위명칭은 졸업 이전에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적으로는 학위가 성적증명서에 기입된(posted) 이후라야 가능하다.

(3) 풀러신학교의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은 1년에 한 번, 보통 6월 두 번째 토요일에 거행된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졸업신청서를 3월 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전 해 졸업식 이후에 졸업하였지만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다. 졸업식 전날인 금요일에 본 프로그램 주최로 졸업논문 발표회, 졸업 기념 Banquet, 후드수여식(Hooding Service) 등이 거행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안내는 학위수여식 약 2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지된다. 그러나 사전에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수시로 사무실에 문의할 수 있다.

(5) 본 프로그램의 규정상 모든 학생들은 첫 과목 등록 이후 7년 이내에 논문을 포함한 전 과정을 마쳐야 한다. 졸업시한은 첫 수업을 수강한 쿼터로부터 만 7년이 되는 쿼터의 기준일이다. (겨울쿼터: 3/1; 봄쿼터: 6/1; 여름쿼터: 9/1; 가을쿼터: 12/1) 따라서 졸업과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7년 졸업 시한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논문의 완성이 7년 시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이 시한이 지나기 전에 교수회에 졸업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연장은 7년시한 부터 10년 시한까지 1년 단위로 3회까지 가능하다.

아직 10년 시한 이전이고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졸업시한을 이미 3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학적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장신청 없이 7년 졸업시한 이내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 3 장 논문 작성법

1. 개관

논문 작성은 논문익삽수료와 논문제안서 작성 제출, 논문 집필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문익삽에 대해서는 본서 제2장 3절을 참고하라. 논문익삽수강자는 논문제안서 패키지를 해당 쿼터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논문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주제를 선택하고 리서치를 통해 참고문헌목록을 구성해야 한다.

논문의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상하여 논문제안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을 디자인해야 한다. 논문의 주제와 연구과제, 그리고 논지 등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목차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이 4가지 작업, 즉 (1) 선정된 주제를 위한 참고문헌목록 구성, (2) 중심 문헌에 대한 독서보고서와 관련 분야 박사 논문에 대한 비평보고서 작성, (3) 주요 연구과제 설정과 논문제안서 작성, 그리고 (4) 논문 디자인과 목차 작성을 마치면, 거기에 표지를 붙여 논문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KDMin 교수회의가 제안서를 심사하고 배정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하여 완료하면 된다.

본 장에서는 논문제안서와 논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먼저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요령과 참고문헌을 발견하고 확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논문 디자인 방법과 논문 작성시 유의할 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2. 논문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은 목회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론과 경험이 종합된 창조적 작품이어야 한다. 논문은 그 구성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자신의 목회 현장이나 사역에서의 특정 이슈나 문제점에 집중하여 이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그 실천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논문이다. 둘째 유형은 한 지역 교회에 국한되지 않는, 한국교회나 미주한인교회 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신학적 반성이나 실천적 전략 혹은 해결책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후자의 경우 학술논문과 유사하지만,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이므로 여전히 목회적, 실천적 연관성이 강하게 드러나야 한다.

논문의 주제는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열정을 느끼고, 어떤 면에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도록 자기의 목회 현장을 갱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이고 공헌도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즉, 학생 본인이 목회 현장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혹은 본인의 목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 연구여야 하며, 이 연구를 통해 학생 본인의 목회가 크게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위논문은 이미 학문적 성찰 없이 지역교회에 도입하여 시행한 프로그램의 보고서나 다른 문헌들의 짜깁기식 요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작성하여 학위를 위해 제출한 적이 있거나 책으로 출판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학위논문은 반드시 본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과 통찰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목회방안을 제시하는 글이어야 한다.

학위논문은 해당 분야의 상당한 연구 업적을 가진 권위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분석, 해결 방안 모두 학문적인 근거와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논문의 주제는 주요 논지의 학문적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대개의 학위논문은 기존의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것이지만, 전혀 혹은 거의 연구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탐구하여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학계에 공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목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학위논문은 기존의 수많은 문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문헌을 찾아 리서치(research)를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가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참고문헌을 선택하느냐는 논문의 질과 방향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최선의 참고문헌을 확보할 수 있는가?

첫째로, 풀러신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검색시설이 잘 정비된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주제와 부제들을 통해 문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풀러신학교 David Allan Hubbard 도서관

<http://fulleripac.fuller.edu/>로 가서 General

keyword란에 “korean” “thesis” “theology”를 입력한 뒤 Enter 키를 누르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풀러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박사과정 논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정기간행물은 미국신학도서관협회(ATLA)의 Religion Index, 한국신학정보연구원과 누리 미디어가 출시한 한국신학종교정간물 색인초록 CD 를 이용한다.

한국에서 출간된 학술자료들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거나 보려면 풀러도서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http://library.fuller.edu/library/databaselist.asp>)에 링크되어 있는 한국학데이터 베이스(<http://www.e-koreanstudies.com/>)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로 가서 주제어 검색을 하면 된다.

둘째로,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아마존서점

<Http://www.amazon.com>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mall/?GO=book_main

생명의 말씀사 <Http://www.lifebook.co.kr>

셋째로, 과목과 세미나의 참고문헌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풀러 한인목회학박사원 홈페이지의 강의개요 부분에 들어가서 해당 분야 과목을 찾아 독서 과제 목록을 살핀다. (<http://www.fuller.edu/kdmin>)

넷째로, 이미 발견한 참고문헌이나 박사논문의 각주나 참고문헌 목록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인용된 문헌을 직접 읽고 자신의 연구 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문헌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검색을 통하여 발견한 문헌들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첫째, 단행본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가?

한국어 서적을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까운 서점을 통하여 주문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내 기독교서점들(홈페이지):

조이기독교백화점 <http://www.joyla.com>

알라딘 USA <http://www.aladnusa.com>

미주생명의말씀사 <http://lifebookus.com>

한국내 기독교서점들:

둘째, 정기간행물의 논문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가?

영문 정간물의 논문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복사하면 된다. 한편, 한국의 정간물 논문은 한국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현지 도서관을 방문 복사 우송을 부탁할 수도 있고, 목회와 신학, 기독교사상, 신학지남, 신학사상 등 주요 학술지나 준 학술지들이 모든 본문을 담은 CD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여 출력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영문 정간물이 한국 도서관에 없을 경우 본교 사무실을 통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도서관에 대출하여 필요한 부분을 복사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들은 구하기 힘들지만, 풀러신학교 도서관에 Inter-library loan 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도 있고, 소장 도서관에 연락하여 복사본을 구입할 수도 있다.

5. 논문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은 3부, 즉 이론, 현장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로 구성되며, 길이는 최소 본문 100페이지, 부록을 제외하고 최대 150페이지로 제한한다.

1부 이론 부분은 주제의 신학적 기반으로서, 자기가 연구하려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신학적 기반을 형성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가장 직접적인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는 이론 연구를 하고, 또한 한 두 이론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구하며 최신의 전문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2부 현장분석은 이론을 적용할 현장의 context를 상세히 분석하는 작업이다. 현장분석은 주변분석과 교회분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특히 자기가 연구하려는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대상에 대한 오해는 결국 적용의 오류와 방법론의 비효율성을 결과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엄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부 대안 제시는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대안을 사용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 외에 3부로 구성되며, 3부는 각기 1-3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서, 주제에 따라 혹은 전개 전략에 따라 1부와 2부를 교체할 수도 있다.

논문의 장수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6 이하일 경우에는 내용상 부의 구분은 하되 목차나 내용에서 특별히 부에 대한 언급 없이 장 배열만 함으로써 논문을 보다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다음에 참고로 몇 가지 논문 디자인의 예를 제시하였다.

(1) 새소망 장로교회의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 개발과 목회전략

본 논문은 새신자들이 계속 등록하지만 또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편한 예배, 치유목회, 방문자에 대한 효과적 접근전략, 그리고 새신자반 개선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 파크힐 침례교회의 교인 성숙과 활성화 전략(A Strategy for Maturing and Mobilizing Disciples at Park Hill Baptist Church)

본 논문은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목사의 역할 변화와 교인들의 영적 형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 21세기 미국복음주의교회의 교회관과 목사의 리더십 개선방안(Revisioning the American Evangelic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본 논문은 미국 복음주의교회들이 새로운 시대에도 교회관과 목사의 리더십에 대해 과거의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함으로써 비효율적 목회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21세기형의 새로운 교회관과 목사의 리더십 이해를 제시하였다.

(4) 그 외에, 교회성장, 교회개혁, 그리고 특수그룹전도에 대한 논문구성도 참고하라.

□ 논문디자인 샘플: 새소망 장로교회의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 개발과 목회전략

- 연구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를 처음 방문한 새신자들을 새소망 장로 교회의 교인으로 잘 정착시켜서,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과 목회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국에서 가장 적은 수의 교회가 있는 지역이다. 교인 (한 달에 2회 이상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넘지 않는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12,000명에서 19,000명으로 성장하여 왔다. 인구 성장의 주요한 원인은 이곳에 건설되고 있는 공단 지역에 전근되어 오는 회사원과 그의 가족들이다.
- 새소망 장로 교회의 평균 출석 인원은 2부 예배를 합쳐 약 500명 정도이며, 매주 평균 한 두 명 정도의 방문자들이 새롭게 방문한다. 새소망 장로 교회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로서, 새로 이사해 들어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처음 서너 번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방문자에 대한 새소망 교회의 환영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 이 논문은 세 부분 (Section)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교회 인상을 심어 주고 또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 방법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교회 성장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와 수적인 증가를 위한 분위기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로 나온 사람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교회와 주변 사회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새소망 교회와 지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필요와 지역 사회가 장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을 교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서 살피게 될 성경적, 신학적 원리들과 일치하며, 두 번째 부분에서 고찰하게 될 교회와 지역 사회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들과 목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각 장마다 전도 요원을 훈련하는 방법, 새로 나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방법, 그들을 교회의 사역과 교회 생활에 잘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 교역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을 잘 훈련하여, 그들 모두가 새롭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소망 교회 안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목회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 논문의 개관(Synopsis) --

서론

제 1 부: 전도와 정착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

1. 전도의 신학

- 1.1. 전도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위임
- 1.2. 전도의 방해물
- 1.3. 전도와 정착의 분위기 창조

- 이 장에서는 주류 장로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기를 꺼리는 이유와 아울러, 전도와 정착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에 대해 논의한다.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에서, 새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2. 정착의 신학

- 2.1. 교회 성장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초
- 2.2.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 2.3. 성장을 위한 분위기 창조

- 이 장에서는 교회 성장과 연관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전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왜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지에 대한 이유들과 교회 성장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주류 장로교 교파의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다.

제 2 부: 지역 사회와 교회의 현황

3. 새소망 교회가 소재한 지역 분석

- 3.1. 지리학적 요인
- 3.2. 경제적 요인
- 3.3. 인구학적 요인
- 3.4. 앞으로의 전망

- 이 장에서는 교회의 잠재적인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지역 사회의 요소들을 다룬다. 인구통계 자료가 제공하는 인구 자료와 지역사회와 교단의 자료들이 사용될 것이다.

4. 새소망 장로 교회의 현황

- 4.1. 역사적 현황
- 4.2. 현재의 상황

4.3. 교인 현황

4.4.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이 장에서는 새소망 장로 교회의 구조와 생활, 그리고 새소망 교회의 성장과 정착을 방해하거나 돕는 요소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다. 전직 목회자들과 교인들과의 인터뷰와 더불어 회중들에 대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연구할 것이다.

제 3 부: 새로 나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정착하기 위한 전략

5. 새소망 장로 교회의 현황 조사

5.1. 현황 조사의 필요성

5.2. 교회 현황 조사에 있어서 고려할 기본적인 문제들

5.3. 새소망 장로 교회를 위한 현황조사 전략

- 이 장에서는 새소망 장로 교회 현황 조사를 위한 전략과 계획을 개발한다. 신자들과 지역 사회 안에서의 목회의 방향에 대한 특별한 제안들이 연구되어 질 것이다.

6. 신자들에게 편한 (User-Friendly) 예배의 개발

6.1. 신자들에게 편한 예배의 모델들

6.1.1. 새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모델

(The Seeker-service Model - Willow Creek)

6.1.2. 새 신자들에게 민감한 모델

(The Seeker-sensitive Model - Saddleback)

6.2. 전략상의 문제점들

6.2.1. 현대적, 전통적 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개발

6.2.2. 예배 계획 모델

6.2.3. 예배 인도 팀의 선정과 훈련

- 이 장에서는 전통적인 예배인 11시 대예배와 함께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저녁 예배를 현대적인 예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연구한다. 이런 두 가지 예배 형식에 대한 인도자와 순서를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주어진다.

7. 치유 (Recovery) 목회

7.1. 새소망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

7.2. 치유 목회 모델들

7.3. 치유 목회의 필요성을 알아내기

7.4. 모집, 훈련, 시장 조사

7.5. 지원과 감독

- 과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알콜 또는 약물 중독이나 펍박, 학대 등의

문제로 인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 정부나 도청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도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새소망 장로 교회의 치유 목회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발전시킨다. 교회 안에 “치유 목회에 적합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특별한 관심이 주어진 것이다.

8. 방문자들에 대한 접근

8.1. 방문자들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8.2. 효과적인 접근 전략의 개발

- 이 장에서는 이 지역의 방문자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신자들에게 새로운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훈련된 요원들이 잘 접근하여 따뜻하게 그들을 환영하는 특별한 목회전략들이 수립 평가될 것이고, 새로운 제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9. 적응하지 못하는 새신자들을 제자반으로 인도

9.1. 새신자반의 목표 재설정

9.2. 효과적인 정착 프로그램의 개발

9.3. 정착의 기초로서 소그룹의 효율성

9.4.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목표로서 단기 선교

- 이 장에서는 교회에 새로 등록된 신자들과 새신자들을 교회의 생활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착시키는 특별한 목회 계획들과, 세례 문답자 세미나, 새신자반, 새신자들을 위한 “후원자들,” “새 신자 동원” 전담반 등의 계획이 소개된다. 소그룹을 통하여, 새로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격려하는 전략도 논의될 것이다.

요약과 결론

부 록

참고문헌

6. 논문작성시 유의사항

(1) 논문을 사용하라

학위논문은 설교나 수필이나 간증이나 보고서가 아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선언, 혹은 비난이나 자랑은 금물이다. 학위논문은 엄격한 논문체로 작성해야 한다. 논문체란 만연체보다는 간결체로서, 논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는 참고로 삼입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논의만을 절제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논문은 참고 자료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총망라하여 제시하는 글이 아니라, 제한된 지면에서 자신의 논지만을 일관성 있고 집요하게 전개해나가는 학술적인 글이다. 논문은 다른 책에 있는 글을 참고로 옮겨 놓는 참고서도 아니다. 더욱이, 설교문이나 신변잡기나 경험담이나 간증이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논문이 아니다. 논문체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전개되는 글이다.

(2) 모든 주장에는 근거를 제시하라

만인이 알고 동의하는 자명한 내용이나 앞 문장과 논리적인 연결로 새로운 근거제시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장에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란 전문적이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 가능한 최고의 전문적이고 원천적인 근거가 가치 있다. 2차 혹은 3차적 근거나 권위 없는 근거는 근거로서의 가치를 격하시킨다. 근거는 주로 각주를 통해 제시하는데, 자신이 직접 확인한 근거만을 기록해야 한다. 다른 책에 인용된 글을 확인없이 다시 언급 혹은 인용할 경우 재인용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논문의 주체가 되라

논문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나 적합한 참고자료의 인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타인의 생각이 논문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인용의 주체이며, 인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용은 거기에 대해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논문의 학술적 행위이며, 따라서 자기 주장만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학문적 토론을 통해 동의와 비판, 찬성과 반대, 장점과 단점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탁월한 의견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논의의 주체는 필자이며, 따라서 엄밀한 논증 절차를 통해 그 의견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논문은 모두 필자의 주도적 논의로 전개되어야 하며, 인용은 될 수 있는 한 논의의 맥을 단절하지 않도록 관련된 부분 혹은 핵심적인 구절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문맥을 생각하여 모든 문단이나 심지어 여러 문단을 인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문맥은 필요한 경우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주에 출처를 제시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문맥은 한마디로 본문에 혹은 각주에 언급될 수 있다. 즉, 모든 인용은 필자의 논의에 보조적이어야 하며, 인용문이 논문을 이끌고 나가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논문에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론을 다룬다면, 그것이 맥가브란의 주장을 정리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맥가브란을 다른 성장학자들의 평가를 참고하면서 자기의 맥가브란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비판적 논의여야 한다. 논문은 타인의 이론이나 주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논평하며 자기의 주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4) 학문적으로 정직하라

타인의 생각을 출처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자기 것 인양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인용에는 본문을 인용하는 직접인용과 내용을 인용하는 간접인용이 있는데, 둘 다 인용이며 각주를 필요로 한다. 직접 인용은 한 문구라도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하여 분명히 타인의 인용문임을 밝혀야 하며, 간접 인용인 경우에도 특정 저자를 참고하였음을 명시해야 한다. 타인이 인용한 글을 인용하기를 원할 때 가능한 한 원전을 확인하고 원전을 각주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원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인용임을 밝히고 원전과 인용서 둘 다 기록해야 한다.

인용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인용했을 경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표절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논문이나 책을 상당 부분 요약 혹은 정리하여 옮기는 것은 심지어 각주를 표기했다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표절에 해당한다. 학위논문은 모두 본인의 창조적 작품이어야 하며, 인용도 필자의 논리 전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

아무리 인용부호를 했을지라도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인용시에는 핵심적인 문장만을 인용하고 문맥을 포함하여 긴 인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논지 전개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본문을 일일이 인용하기 보다 책과 장 절 표시를 문장이나 어떤 문구 뒤에 괄호를 붙여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충분히 리서치하고 사색하라

빈약한 논문은 대개 자료부족과 사고부족에 기인한다. 학문적으로 우월한 참고문헌을 충분히 그리고 넓게 읽고 논리적으로 깊이 오랫동안 사색하면 좋은 논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할 때 풍요한 논문이 나오며, 깊이 사색할수록 논리정연하고 창조적인 논문이 산출된다. 불과 몇 권의 책에 의존하여 논문을 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학문적 코이노니아가 부족하면 자기의 비전문적인 주관은 억지로 전개하게 되며 참고나 인용은 모두 자기를 무반성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논문을 쓸 때 그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모른 채 쓰려고 해서 안 된다.

(6) 반론을 예상하라

학위논문은 설교와 같이 자기가 준비해서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반론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문은 전문가들의 심사와 논문의 방어가 필수적이다. 반론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준비 없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표적인 반론들을 탐사하고 분석하여 그 반론들에 대한 자기의 방어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다. 그것이 논문의 일부이며 논문의 필수적 과정이다. 따라서, 학위논문에서는 한 문장도 주의 없이 편안하게 써서는 안되고 항상 자신이 제시하는 모든 문구와 문장이 받을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며 논리적 빈틈을 주지 않도록 방어적으로 논의하고 기술해야 한다.

(7)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라

학문에서 있어서 방법론(methodology)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참고할 문헌과 자료를 인용하거나 거론하기 전에 그 과학적 가치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 아무 책이나 아무 자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이란 어떤 결론이나 데이터가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다는 의미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글이라야 전문적 권위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설문을 작성하거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때 전문적인 조사방법론을 따르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과학적인 결과가 산출된다. 사례 연구를 할 때에도 우발적이나 편파적이지 아니라 먼저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례를 선정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 교회를 분석할 때에도 그리하고, 대안은 분명한 학문적 근거와 과학적 분석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한다. 논문이 과학적일 때 타인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신학과 목회는 단순한 과학적 방법을 초월하지만,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은 신학적, 인문과학적 방법뿐 아니라 사회과학적 방법론도 사용한다.

(8) 실제로 사용할 논문을 쓰라

목회학박사 논문은 실제로 자기교회나 사역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나 과제에 대하여 그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논문은 쓰지 말아야 한다. 자기도 쓰지 않을 것을 타인이 사용할 리 만무하다. 단지 학위를 받기 위해 한번 써보는 것은 진지하지도 않으며 학위를 받을만한 가치가 없다. 어떤 주제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본 과정은 목회와 함께 진행되므로, 학위논문은 실제적 공헌도가 있어야 하며 그 효용성도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의 실제적인 고민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아 자기 목회에 적용하고, 또 다른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논문을 써야 한다. 학위논문은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학문은 코이노니아이며 특히 목회학박사 과정은 교회를 위한 작업이며 그 결과가 교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라 교회가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고 관계 영역에서는 실무자들과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문은 지도교수와의 논의가 중심적이지만, 주위에 자기 논문을 읽고 진지하게 장단점을 지적해줄 수 있는 가족이나 동료나 교인에게 초고를 주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면서 진행하면 보다 더 실용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타인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한다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 각 장을 작성한 후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읽게 한 후 수정을 거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9) 모든 부분을 연결하라

논문은 하나의 논지를 가진 하나의 작품으로서 건물이나 몸과 같아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논문이 여러 개의 소논문을 단순히 붙여 놓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논문은 하나의 강과 같이 도도히 흘러가야 하며 중간에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이 명료하게 디자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장과 장 절과 절을 일맥상통하게 연결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장에서 1절을 시작할 경우 바로 시작하지 말고 먼저 도입하는 문단을 두어 왜 이 장이 이 논문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장에서는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1절로 들어가야 하며, 한 장을 마칠 때에도 그 장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장과의 연결을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과 장 절과 절이 단절되면 논문은 흐름이 단절되어 파편화되고 하나의 통일된 주장과 전개를 상실하여 논문이 전체적으로 약화된다.

(10) 결론은 맨 나중에 내리라

논문은 가설을 인정하지만, 연구를 마치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연구 이전에 가진 독단이나 편견을 정당화하는 주관적 작업에 불과하다. 논문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라”는 말대로, 먼저 당면한 문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설정한 다음에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진지하고 열린 자세로 그 대답이나 해결책을 얻으려고 추구해야 한다. 연구는 처음에 의도하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그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미리 다 아는 문제는 연구할 필요 없다. 모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맨 나중에 내려야 한다. 그리고, 각 장에서도 맨 나중에 결론을 내리고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다음 장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모든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제 4 장 논문 양식

1. 개관

학위논문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논문의 내용과 함께 논문의 양식도 심사 대상이 된다. 논문 양식은 Turabian과 같이 통일된 양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국가나 분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학위논문의 양식은 각 학교가 정한다. 따라서, 한인목회학박사원의 학위논문은 엄격히 본 프로그램이 정한 논문양식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은 논문양식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논문양식 전자매뉴얼을 사용하면 된다. 여기서는 그 사용법과 중요한 양식의 원리들만을 설명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전자매뉴얼 사용법

본 박사원의 논문은 MS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양식파일(template)을 사용해야 한다. 양식 파일은 KDMin 홈페이지인 아래 UR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논문양식의 원리

논문양식은 일관성과 간결성과 명료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관성이란 동일한 양식을 논문 전체에 동일하게 표기함으로써 혼선을 피하고 평이하게 이해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정된 양식을 모두가 항상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학문적 공동체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만일 양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용한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된다.

간결성이란 논문의 본질로서, 가능한 한 최소의 형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기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페이지를 표기할 때 p. 3과 같이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모두가 아는 p.(혹은 페이지)는 생략하고 페이지 숫자만 표기하는 것이나 처음에는 저자와 서지 정보를 모두 기입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자와 서명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것도 이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명료성이란 추적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분명하게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띄어쓰기나 줄 띄기, 자간격과 줄간격, 맞춤법, 글자 크기 등의 형식들도 모두 논문을 읽는데 가장 쉽고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논문양식의 유의사항

(1) 컴퓨터를 배우라

논문은 아래한글이나 워드와 같은 문서작성프로그램(Word-processor)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모르면 불가능하며, 제대로 모르면 많은 양식상의 실수를 하고 추후의 편집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을 완성하려면 컴퓨터의 기본, 특히 아래한글을 배워야 한다.

(2) 스타일 기능을 사용하라

스타일이란 미리 논문 전체의 형식을 정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스타일 속에 논장, 절, 항, 목을 쓸 때나 다양한 문단 형식을 쓸 때 먼저 스타일의 해당항목을 누르고 쓰면 자동적으로 지정한 들여쓰기와 글자 크기 등이 나타나서 논문 전체가 통일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 스타일은 각자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 전자매뉴얼 속에 들어있으므로 자기 컴퓨터에 설치만 하면 된다. 스타일을 쓰지 않고 일일이 들여쓰고, 더욱이 스페이스키나 탭키를 사용할 경우 후에 편집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3) 서명은 이탤릭체를 사용하라

타자기로 논문을 사용하던 때에는 서명에 밑줄을 사용하였으나, 컴퓨터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태릭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서명은 영서이든 한서이든 모두 이태릭체를 사용하라. 그리고, 번역서인 경우에는 번역된 한글제목을 사용하고 영문제목이나 한글제목 뒤에 괄호하고 영문 제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음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한 글번역명을 사용하지 말고 본래의 영어명을 사용해야 한다.

(4) 간략형을 사용하라

Op. cit.나 “앞에 인용한 책” 혹은 “전계서”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책을 찾기 위해 앞 을 모두 뒤져야 하는 불편 때문이다. 이제는 그 표기 대신에 간략형으로 저자와 서명을 다시 기록해준다. 저자가 서양인인 경우에는 Last Name만 기록하고 서명도 부제를 생략하고 원제 도 너무 길면 간략하게 표기해준다. 처음 나온 문헌의 경우에는 이름 전체, 부제를 포함한 서 명 전체, 그리고 역자와 출판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페이지수를 쓰지만, 두 번째부터는 단지 간략한 저자명과 서명만 기입하고 바로 페이지수를 쓰면 된다.

바로 앞 각주에서 언급 혹은 인용한 책을 재차 언급 혹은 인용할 경우 Ibid를 사용한다. 앞 각주와 페이지가 다를 경우에는 ibid에 페이지수만 덧붙여준다. 각 페이지의 첫 각주에는 Ibid를 사용하지 않는다. 앞 페이지로 넘겨서 저자와 서명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 때문이 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모두 Ibid를 쓰고 양식 교정 때 이를 수정하 면 된다. 미리 그럴 경우 편집을 하면 혼선을 빚게 된다.

성경의 이름은 본문의 괄호 안이나 여러 개가 나열되는 경우 그리고 각주에는 모두 간 략형을 사용하되, 본문 안에는 간략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역자나 편자는 역, 편으로 통일하고 옮김이나 편자를 쓰지 않으며, 저자는 저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 쓴다. 출판사에서 앞에 붙 어있는 도서출판이나 영문출판사에서 뒤에 길게 붙어있는 Publishing Company나 Incorporated 등의 상업적 표기는 생략하고 이름만 쓴다.

(5) 괄호 안의 표기를 반복하지 말라

서양의 인명이나 고유명칭 혹은 중요한 개념이나 전문용어, 한자 등을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기입하는데, 한번만 사용하며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리고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헬라어나 히브 리어의 경우 원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음역을 할 경우 영어 혹은 한글로 음역해 주어야 한다.

(6) 신명조체만 사용하라

논문은 모두 신명조체(Word의 경우 바탕체)만 사용해야 하며, 결코 강조를 위해 밑줄을 긋거 나 고딕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논문양식은 평이해야 하며 거슬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논문의 강조는 내용을 통해 가능하며 외적 양식을 통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7) 그림이나 표는 본문에 포함시키라

그림이나 표를 삽입하는 방법에는 논문파일 안에 포함시키는 것과 단지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논문을 제출할 때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논문파일 안에 포함시켜 하나의 파일만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이나 표를 만들 때 용량을 적은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표의 경우 완성하지 않은 채 일부는 따로 만들고 일부는 본문에 넣은 다음 만들면 편집시 서로 각 놀아 혼란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먼저 표를 따로 완전히 만든 후 삽입하든 지 아니면 완전히 본문 속에서 만들든지 하여야 한다.

(8)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검사하라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검사하여 수정해 야 한다.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사하고, 그런 다음에는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한 오류를 자세히 읽으면서 수정하면 된다. 논문에는 표준말과 정상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투 리나 축약된 구어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간격은 1자만을 띄고, 문장을 마치고 다시 문 장을 시작하는 간격도 마찬가지로 한 칸만 띄다. 콤마나 콜론, 마침표 뒤에는 항상 한 칸을 띄 고 그 앞은 띄지 않는다. 괄호는 앞의 글과 붙이지 말고 한 칸을 띄다.

KDMin 논문양식 매뉴얼

아무리 좋은 내용의 학위 논문이라도 적절한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논문의 양식은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매뉴얼은 한인목회학박사원에서 모든 코스웍을 끝내고 학위 논문을 쓰는 분들에게 논문 양식을 익히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1. 논문 양식 교정 단계

- (1) 제출한 논문에 대해 주심과 부심 평가를 모두 통과하면 스타일 에디팅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오는 단계가 양식 교정 단계다.
- (2) 양식 교정자는 본 프로그램의 논문양식 매뉴얼에 의거하여 처음 30 페이지와 참고문헌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양식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코멘트하여 학생 본인에게 되돌려 준다.
- (3) 논문 작성자는 코멘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이하의 장들의 양식 역시 이에 준하여 수정한다. 보통 처음 30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양식상의 오류가 뒷 부분에서도 계속 반복된다.
- (4) 양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에서 양식 교정 사항이 20 가지 이상인 경우 제본을 위한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학생에게 되돌려 보낸다. (원하는 경우 본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양식 교정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으나 양식 교정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5) 양식 교정자가 논문의 양식이 출판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의 최종본은 프린트하여 제본소로 넘겨진다.

※ 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Dissertations, Theses, and Term Papers* (6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이나 Patrick H. Alexander, et. al. eds., *The SBL Handbook of Style: For Ancient Near Eastern, Biblical, and Early Christian Studies* (Peabody: Hendrickson, 1999)을 따르고, 한글로 작성할 경우에는 풀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양식 매뉴얼을 따르시면 됩니다. 단 한글 논문 내에서 영문서적이나 글을 언급하거나 인용할 경우 본 전자 매뉴얼에 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2. 논문의 일반사항

- (1) 분량: 본문만을 고려할 때 100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며 150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 (2) 용지: 편집용지는 A4 나 B5 가 아니라 Letter 용지 (8.5 x 11 inches)를 사용해야 한다.

(3) 여백: 위로 1 3/8 인치, 아래는 1 인치, 우 1 인치, 좌 1.5 인치로 한다(한글 메뉴에서 모양 → 편집용지 → 왼쪽 37, 오른쪽 25, 위쪽 20, 아래쪽은 15, 머리말 15, 꼬리말은 10 입력. 페이지 내의 모든 양식이 미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kadminchap1.hwp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면 편리하다.)

(4) 글꼴: 한글의 경우 바탕체나 신명조를 사용하고 영어의 경우 Times New Roman 을 사용한다. 아래한글에서 가끔 페이지 번호가 명조 혹은 중고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아래한글의 기능키 [F6]를 누르신 후 “페이지번호” 스타일의 글자모양을 바탕체로 바꾸어주면 된다.

3. 논문의 제목과 소제목에 대한 원칙들

(1) 서론과 본론은 장과 같은 수준의 제목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장으로 처리합니다(제 1 장 서론; 제 7 장 결론).

(2) 장 제목 이하에는 7 단계의 소제목을 둘 수 있다.

제 1 절 1. 가. (1) (가) 1) 가)

각 제목은 1 줄이 넘지 않도록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간혹 “부”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부(部)에 해당되는 제목을 장 제목과 같은 스타일로 표현하고 5 줄 아래에 부에 대한 서론 글을 적은 후 페이지 나누기를 하여 이어지는 장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장 제목은 반드시 새로운 페이지의 맨 위에 두어야 한다 (장 제목/중앙정렬, 신명조 14). 그리고 장 제목 아래 5 줄의 여백을 두고 본문을 시작합니다(절의 경우 아래에 1 줄의 여백을 둔다). 장 제목 아래 “절” 제목이 시작되기 이전 부분에는 장의 과제나 목적, 전략 등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서론적 언급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를 살펴보았다”라는 과거적 표현보다 “..를 살펴보하고자 한다”는 식의 현재적 문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언급 없이 장 제목에서 하위 제목으로 곧바로 내려가면 안 된다.

(4) 두 단계 이상의 소제목들이 소개문 없이 단순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소제목이 따르는 문장 없이 페이지 하단에 오게 될 경우 소제목 앞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하여 소제목이 다음 페이지의 첫 머리에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4. 본문 이외 페이지들에 대한 원칙들

(1) Title Page(표지)

논문 제목은 누가 봐도 그 논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논문의 내용과 주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어야 한다. 영문 제목의 경우 15 단어 이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해야 한다. 영문과 한글 표지 모두 만들어야 하며 제본 단계에서 통일된 표지 양식에 맞게 조정된다.

(2) Abstract(초록)

초록의 맨 위에는 논문제목, 저자, 학위, 승인 년도, 대학원 이름 등을 적고 맨 아래에는 지도교수들의 이름을 표기한다. (Abstract 의 제목 부분은 글꼴 크기 11, 행간 160 으로 하며, 내용 부분은 행간 200 으로 한다). 초록은 논문의 목차 이전에 두면 된다.

(예)

Abstract
 A Strategy for Assimilating New Members at New Hope Presbyterian Church
 Kil Dong Hong
 Doctor of Ministry
 2000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hat... (이하 생략)

Theological Mentors: Seyoon Kim, PhD

Jin Ki Hwang, PhD

(3) Vita (약력)

Vita 는 쉽게 말해 한 페이지 정도의 약식 이력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학력(학부 이상, 연도와 학위명 포함), 경력(교회 사역, 기관 및 선교 단체 사역 경험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되, 그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힘), 가족사항(배우자 및 자녀들의 이름), 수상경력, 현재의 소속 교회 및 교파를 명시하실 수 있다(Vita 의 제목 부분 역시 크기 11 에 행간 160 으로 함).

(4) Bibliography (참고문헌)

논문에 직접 참조 혹은 인용한 문헌은 결론을 제시한 다음 (부록이 있을 경우 결론 뒤에 부록을 실고 그 다음) 3 부분으로 나누어 가나다순(혹은 ABC 순)으로 배열한다. 문헌 표기법이 각주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국문서적
2. 번역서적
3. 외국서적

영문사적, 단행본, 주식사전류,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구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5) Approval Sheet (승인서)

승인서는 원칙적으로 논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kadminchap1.hwp 파일 속에 있는 sample 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승인서는 제본 단계에서 논문 양식을 통일하기 위해 수정될 수도 있다.

(6) Dedication(헌사)과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헌사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글을 통해 지도 교수나 가족, 교회, 친지, 동료 등이 연구를 위해 도움을 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례다. 길이는 1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7) Appendices(부록)

부록은 반드시 연구에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담는다. 각종 설문지나 논문의 논지를 뒷받침해주는 부가적인 도표나 그림, 혹은 인터뷰 녹취록, 번역물, 및 기타 문서 자료들이 이에 해당된다. 부록의 제목은 본문의 제목과 소제목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부록의 본문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면 보다 좁은 행간으로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

5. 표와 그림 표기법

논지 전개에 필수적인 표나 그림, 사진 등은 본문 안에 삽입하여 사용한다. 그림의 유형에는 그래프, 다이어그램, 줄 그림, 그리고 차트(Chart)가 있다. 표제어는 도표나 그림의 상단 중앙 혹은 하단 중앙에 그림과 1 줄 정도 간격을 두고 표기한다. (어느 경우든지 논문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 도표

번호는 논문에 실리는 순서대로 번호 매김을 한다 (예, <표 1>, <그림 2>). 도표나 그림은 본문에서 분리되도록 한다. 도표는 본문 페이지의 상단이나 중앙, 혹은 하단에 올 수 있다(본문과 어울림을 선택하고 중앙정렬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도표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 이 도표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2 줄 이상의 본문과 함께 결부되어야 한다.

다른 저자의 표나 도표, 그림을 인용한 경우는 참고 자료에 대한 정보를 도표 하단에 괄호처리해 표기하거나 각주로 밝혀야 한다. 만일 다른 저자의 그림이나 도형을 일부 변형시키거나 수정했다면 그 사실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래한글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직접 만들 경우 그리기 아이콘 메뉴바에서 개체 선택 아이콘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그림 전체를 포괄하도록 범위를 정한 뒤 개체 묶기 아이콘을 눌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화살표나 박스 글 등이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될 수 있다.

지도는 가능하면 컴퓨터 스캐너로 그림 파일을 만든 후 문서 파일 안에 “개체 삽입”(메뉴에서 입력→개체 삽입)을 하여 표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글자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복사하여 문서에 첨부할 수 있다.

6. 페이지 번호 표기법

- (1) 페이지 번호는 각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표기하며, 마침표나 하이픈, 대시, 괄호 등의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2) 논문 통과를 승인하는 페이지(Approval Sheet)와 논문 제목이 적혀있는 Title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3) 본문의 페이지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본문 이전 페이지들의 페이지 번호는 로마자 소문자로 표기한다.

1) 로마자 소문자 유형

Title 페이지	i (첫 페이지로 간주하지만 쪽번호 표기 없음)
Abstract	ii
Dedication (헌사)	iv
Acknowledgement (감사의 글)	v
Table of Contents (목차)	vi
약어 및 도표, 그림 목록	ix

2) 아라비아 숫자 유형

[1] 본문의 서론 첫 장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매김(새번호시작)을 한다 (“부” [Part] 구분을 사용하는 경우 페이지 숫자를 지정하되, 페이지번호 감추기를 한다).

- [2] 논문의 나머지 부분들(부록, 참고 문헌, Vita 등)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를 표기한다.
- [3] 목차에는 본문의 1 페이지는 포함하되 목차 이전에 나온 로마자 페이지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로마자 소문자 페이지 번호를 가지는 Abstract 나 감사의 글은 목차에 포함하지 않는다!)

7. 기호, 숫자 및 외국어 표기법

- (1)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글꼴의 크기나 모양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진하게 혹은 밑줄). 단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는 책제목과 저널 명은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2) 1 부터 100 까지의 숫자들이 영어로 사용되는 경우 본문 안에서는 하이픈을 사용하여 표기합니다(예, twenty-one).
- (3) 본문 내에서 %는 ‘퍼센트’라고 풀어서 표기하고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15 퍼센트). 단 도표나 그림 안에서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 (4) 본문에서 순서를 매겨 내용을 설명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 대신 첫째, 둘째, 셋째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순서를 매기는 서로 다른 설명이 이어질 경우에도 가능하면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피한다. 간혹 사실을 지나치게 나열하려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연구 논문에서 지나친 나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 잔가지들 많이 두기보다 바로 핵심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도표나 그림에서는 숫자의 사용이 허용됨). 사실에 대한 설명문이 아닌 인용문구나 사실의 단순한 나열의 경우에는 굳이 순서 매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간혹 소제목의 스타일과 혼동되게 번호 매김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종종 더 많은 숫자 체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1.1.1.; 1.1.2,....; 가...하, 거, 너...; 하나, 둘, 셋...). 그러나 설명 문구를 소제목으로 표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설명만 제대로 된다면, 서로 다른 순서 매김이 이어진다고 해도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기법 그 자체가 큰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불가피하게 10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해야 할 경우 원문자 [①, ②, ...]를 사용할 수도 있다).
- (5)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표기하고자 할 경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외국어 지원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한글의 경우 입력 -> 문자표 -> 유니코드 문자표 -> 헬라어/히브리어에서 글자를 선택 입력하실 수 있으며, 2002 이상 버전의 경우 영문 입력 모드로 전환시키고 헬라어, 히브리어 폰트 (Bibleworks fonts; spionic.ttf; sptierian.ttf)를 이용해 직접 입력 혹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입력할 수 있다. MS 워드 역시 삽입-> 기호->히브리어 혹은 헬라어에서 글자를 선택 입력하거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접 입력 혹은 붙여넣기할 수 있다. 이때 액센트나 breathing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영문 음역기호를 사용할 경우 영문이나 한글로 표기하고 이탤릭으로 바꾸어준다 (예, *basileia*).

8. 각종 인용 표기법

(1) 성경 인용

첫째, 본문 안에서 성경 구절을 언급할 경우 성경 각 권의 풀어쓴 이름과 장, 절을 표기한다(예, 고린도전서 12 장 6 절). 인용문 내의 성경 구절의 경우 가능하면 원저자의 표기법을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예, 고전 12:6; 1 Cor 12:6; 1 Cor. 12.6; 1 Kor. 12, 6, etc.).

둘째, 본문 안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그 구절의 출처를 약어로 표기한다. 이 때 괄호 안에 인용하고 있는 번역본 역시 표기해 주어야 한다(예, 고전 12:6, 한글개역). 대부분의 성경 인용에서 같은 번역본이 사용될 경우 최초의 성경 인용 때 각주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성경을 따른다”).

셋째, 본문 내용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각주에 소개하지 않도록 한다. 그 출처는 반드시 인용구 뒤에 괄호처리한다. 단, 관련 성경절이 많을 경우에는 각주 안에 나열할 수 있다. 각주에서 성경구절을 언급할 경우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장절은 콜론으로 구분, 각 절은 세미콜론으로 구분).

넷째, 3 줄 이상의 성경 구절을 인용할 경우 다른 인용문 표기법에 준하여 독립절로 분리시켜 표기한다. 다섯째, 정확한 성경 약어를 사용해야 한다.

창	아	마	요일
출	사	막	요이
레	렘	눅	요삼
민	애	요	유
신	겔	행	계
수	단	롬	
삿	호	고전,	
		후	
룻	을	갈	
삼상, 삼하	암	엡	
왕상, 왕하	읍	빌	
대상, 대하	온	골	
스	미	살전, 살후	
느	나	딤후, 딤후	
에	합	딤후	
읍	습	몬	
시	학	히	

잡 습 약
전 말 벤전, 벤후 (개역 성경)

(2) 본문 내 인용

- 1) 3 줄 이하의 인용문의 경우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같은 단락 안에 표기하고, 각주를 통해 그 출처를 밝힌다. 아무리 논문의 내용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표절(plagiarism)의 오명을 쓸 수도 있다(본문이나 각주에서 어떤 책의 글을 그대로 따오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해하여 정리하는 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2) 지나치게 자주 다른 저자의 글을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논문의 90 퍼센트 이상은 자신의 말로 써야 한다.
- 3) 다른 저자의 말을 인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다. 약간이라도 변화를 주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문 중 어떤 부분을 밑줄을 이용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 인용문 뒤에 “밑줄 혹은 강조는 필자의 것임”이라는 문구를 덧붙인다.
- 4) 3 줄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에서 분리시켜 인용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직접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글꼴 크기는 11 포인트로 하되, 간격은 130 퍼센트로 하고, 좌우 여백을 각각 1 인치(혹은 10 자)로 한다. 분리된 인용문의 아래위로 한 칸씩 띄운다(각주의 경우 글꼴은 10 포인트로 하고, 나머지는 본문 내 인용에 대한 지침과 동일하다).
- 5) 일부 내용을 생략한 채 인용할 경우 생략된 문장을 말줄임 점으로 표기한다. 말줄임 점이란 한 칸씩 떼진 세 개의 마침표(... 혹은 ...)로서 종종 마침표 앞에 오거나 뒤에 오기도 한다(그렇게 되면 네 개의 점이 나타나게 된다). 말줄임 점들은 항상 인용 부호 내에 찍히도록 한다. 왜냐하면 그 점들은 인용문 내에 생략된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전략, 중략, 후략 [이하 생략]...).
- 6) 만일 생략된 자료가 문장의 끝에 있고 그것으로 인용이 끝난다면 참고 자료를 덧붙일 수 있도록 세 개의 점들을 사용하고 참고 자료를 적기 전에 인용 부호를 넣는다. 마지막 마침표는 출처 괄호문구 뒤에 찍는다: “Being human means not only being destined to compose, but also choosing for one's destiny . . .” (Loder 1989:73).

(3) 각주 내 출처 표기법

- 1) 모든 주석은 각주(footnote) 형태를 사용하며, 미주(endnote) 형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주의 번호는 처음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붙인다. 각주에는 저자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페이지 번호순으로 기록한다.

2) 저자 이름은, 한글 이름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록하고(예, 김세운), 외국 이름의 경우, first - middle - last name 순으로 적는다. 이 때 middle name 은 이니셜을 사용하되, first 와 last name 은 전부 밝혀 줍니다(예, George Washington). 외국저자의 경우 한글 번역 서적을 참조한다 해도 저자명은 영어로 표기해 준다. 어떤 경우에는 first name 을 이니셜로 하고 middle name 을 풀어 써야 할 때도 있다(예, I. Howard Marshall; E. Earle Ellis; N. Tom Wright). 이런 경우는 저자의 출판명에 우선권을 둔다. 같은 저자가 두 번 이상 각주에서 언급될 경우 두 번째 언급 때부터는 last name 만 쓴다. 흔히 붙여권의 이름들은 last name 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예, von Rad; de Gaulle; De Mille; De Vere; La Fontaine, etc.).

3) 책 제목은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또는 『』 표기 안 함). 특히 번역 서적의 경우 한글과 영어 모두를 이탤릭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번역 서적을 참조했을 경우 두 번째 언급 때부터는 영문 서명은 생략하고 한글 서명만 적는다. 각주에서 한글 서명과 영문 서명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영문 서적을 참조했으면, 한글 번역본이 출간되어 있다 해도, 한글 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영문 서적의 경우 한글 서명을 만들어 기입하지 않는다. 편집 서적에 실린 단편 논문(article)을 인용하거나 저널에 실린 단편 논문을 인용할 경우 곁따옴표(“ ”)로 논문의 제목을 표시하며, 이 때 이 논문이 수록된 책이나 저널의 출처를 밝힌다.

4) 출판 정보는 책 제목 뒤에 괄호 안에 표기하며,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 연도 순으로 기입한다. 출판 도시 뒤에는 콜론(:)을 여백 없이 붙이고, 1 자 여백을 두고 출판사를 적고, 콤마(,)를 찍고 1 자 여백을 두고 출판 연도를 적는다. 이 때 명심할 것은, 책 제목과 출판 정보 괄호 사이에 콤마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역자나 편집자 혹은 시리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책 제목과 출판 정보 사이에 표현하고자 할 때는 책 제목 뒤에 콤마를 찍고, 이어지는 추가 정보들 사이에 콤마를 찍는다. 그러나 최종적인 추가 정보와 출판 정보를 표현하는 괄호 사이에는 콤마를 두지 않는다. 출판 도시가 외국 도시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일 경우에는 도시 이름 바로 뒤에 그 도시가 속해 있는 광역 단체(예, State, Scotland) 혹은 국가(Sweden)를 밝히는 것이 좋다. 미국의 주(State)는 우편번호 코드에 사용하는 약자 대신(예, CA, MA) 표준 약자를 사용합니다.

Ala.	Alaska	Ariz.	Ark.	Calif.	Colo.	Conn.
Del.	D.C.	Fla.	Ga.	Hawaii	Idaho	Ill.
Ind.	Iowa	Kans.	Ky.	La.	Maine	Md.
Mass.	Mich.	Minn.	Miss.	Mo.	Mont.	Nebr.
Nev.	N.H.	N.J.	N.Mex.	N.Y.	N.C.	N.Dak.
Ohio	Okla.	Oreg.	Pa.	R.I.	S.C.	S.Dak.
Tenn.	Tex.	Utah	Vt.	Va.	Wash.	W.Va.
Wis.	Wyo.					

5) 페이지 번호는 출판 정보 괄호 뒤에 콤마를 찍고, 1 자 여백을 둔 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로마자 소문자 페이지 번호를 표기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페이지가 2 페이지 이상일 경우에는 대시(-)으로 표시하며 (~ 표기 사용 없음), p. (=page). 혹은 pp. (=pages) 등의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f. [=following]나 ff. [=followings] 사용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정확한 페이지 숫자를 밝혀준다).

6) 같은 페이지 내의 각주에서 바로 직전에 인용한 책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Ibid.를 쓰고, Ibid.는 이탤릭으로 하거나 밑줄을 긋지 않는다. 같은 페이지를 출처로 할 경우 Ibid.만 쓰고, 같은 책이지만 다른 페이지를 출처로 할 경우 Ibid.뒤에 콤마를 찍고 페이지 숫자를 밝혀준다. 또한 같은 페이지 내의 각주에서, A 라는 책을 인용하고 B 라는 책을 인용한 후 다시 A 라는 책을 인용할 때는 op. cit.를 사용하지 않고, 저자와 책제목(약칭)을 표기하도록 한다.

7) 앞에서 인용된 책을 다른 페이지 각주에서 재차 인용할 경우에는 Ibid. 대신 저자의 이름과 책 제목을 적고 페이지 번호를 적는다(예, Seyoon Kim, *Paul and the New Perspective*, 13).

8) 바로 직전에 인용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한 번 인용하여, 그 책의 모든 출판정보가 주어진 책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그 책의 저자이름 (영문의 경우 last name 만)과 책 제목 혹은 논문 제목만 쓰고, 출판사, 연도 등은 생략한다. 물론 이 경우 페이지 번호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9) 기타 자세한 것은 아래의 출처 표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참고 문헌 작성법

1) 참고 문헌은 “국문서적”, “번역서적”, “외국서적”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다른 분류는 하지 않는다(예, 텍스트, 사전류, 주석, 신학 저널, 기타 문서 자료 등등). 그리고 “영문서적”이라는 구분보다는 “외국 서적”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구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왜냐하면 외국서적에는 일본어, 독일어, 불어, 서반아어, 중국어 등의 외국서적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영문서적에는 그 개념상 다른 언어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번역서적”의 경우, 원저자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외국서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기타 알파벳을 근간으로 하지 않는 언어권의 저서를 번역한 경우는, 원저자의 이름을 국문으로 기록하고 영문 이름 뒤에 가나다순으로 나열해도 좋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저자의 경우는 가능하면 한자로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름은 last name 부터 기록하고, 콤마를 찍고 이어서 first name 과 middle name 을 표기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단 여러 명이 저자인 공저의 경우 첫 번째 이름만 last name 을 먼저 적고 나머지는 각주의 이름 표기법을 따른다). 그리고 이어서 서명을 적고 마침표를 찍고 출판사를 적고, 콜론을 하고 한 칸 여백 뒤에 출판사를 적고, 콤마하고 발행연도를 기록한다. 이 때 발행 도시와 출판사, 발행연도를 괄호처리하지 않는다. 페이지 번호는 저널이나 편집서적 및 각종 사전류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에 대해서만 밝혀주되, 그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적는다(비록 인용한 부분이 1 페이지에 불과하다 해도 그 논문 전체의 범위를 밝혀주어야 한다).

3) 한 책에 대한 정보가 1 줄을 넘을 경우 그 다음 줄을 5 자 내어쓰기를 한다 (kadminchap1.hwp 파일의 '참고문헌' 스타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표현되도록 정의되어 있다).

4) 참고 문헌의 도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렬한다.

[1] 한글이나 외국어 모두에 대해 저자의 성(family name or last name) 혹은 단체명을 가장 우선된 기준으로 삼는다.

[2] 같은 last name 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의 경우 first name 혹은 middle name 을 그 다음 기준으로 삼고, 동일 저자의 여러 책의 경우는 책이나 논문의 제목이 그 다음 기준이 된다.

[3] 외국 서적의 경우 영어 알파벳을 모체로 하는 언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렬하고,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등등)에 대해서는 한글음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한다.

5) 같은 저자의 책이나 글이 2 개 이상일 경우 저자 이름 대신 8 자에 해당되는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서명 이하의 내용을 기록한다. 이 때 도서의 정렬은 참고 문헌의 정렬에 대한 일반 원칙을 따른다.

Eliot, T. S. *Murder in the Cathedral*. New York: Harcourt, Crace, 1935.

_____.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 London: Methuen, 1920.

_____. *The Waster Land*. New York: Boni and Liveright, 1922.

9. 출처 표기의 구체적인 사례들

아래는 인용하거나 참조한 글의 출처를 어떻게 각주와 참고 문헌에 표기할 것인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각 항목에는 각주에 처음으로 언급할 경우, 2 회 이상 인용할 경우, 참고 문헌에 표기할 경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1) 저자가 1 명인 단행본의 경우

1) 임진철, 코메니우스의 생애와 사상 (재판; 대구: 봉명문화사, 1988), 127-138.

11) 임진철, 코메니우스의 생애와 사상, 138.

임진철. 코메니우스의 생애와 사상. 재판. 대구: 봉명문화사, 1988.

1) John Hope Franklin, *George Washington Williams: A Biogra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54.

11) Franklin, *George Washington Williams: A Biography*, 80.

Franklin, John Hope. *George Washington Williams: A Biogra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2) 저자가 2-3 명인 단행본의 경우

1) 정의채, 김규영, 중세철학사 (서울: 지학사, 1977), 17.

11) 정의채, 김규영, 중세철학사, 18.

정의채, 김규영. 중세철학사. 서울: 지학사, 1977.

1) Robert Banks and Julia Banks, *The Home Church: Regrounding the People of God for Community and Mission*

(Sidney: Albatross Books, 1986), 13.

11) Robert and Julia Banks, *The Home Church*, 15.

Banks, Robert, and Julia Banks. *The Home Church: Regrounding the People of God for Community and Mission*. Sidney, Australia: Albatross Books, 1986.

1) 조순형, 박일형, 오경태, 신약신학 (3 판; 서울: 도서출판 글방, 1992), 110-112.

11) 조순형, 박일형, 오경태, 신약신학, 111.

조순형, 박일형, 오경태. 신약신학. 3 판. 서울: 도서출판 글방, 1992.

1) Henri Nouwen, Donald P. McNeill, and Douglas A. Morrison, *Compassion: A Reflection on the Christian Life*

(Garden City, N. Y.: Image, 1983), 26.

11) Nouwen, McNeill, and Morrison, *Compassion*, 34.

Nouwen, Henri, Donald P. McNeill, and Douglas A. Morrison. *Compassion: A Reflection on the Christian Life*. Garden City, New York: Image, 1983.

(3) 저자가 4 명 이상인 단행본의 경우

1) 천달식 외, 로마제국과 기독교 (재판; 서울: 도서출판 글방, 1990), 5-6.

11) 천달식 외, 로마제국과 기독교, 8.

천달식 외. 로마제국과 기독교. 재판. 서울: 도서출판 글방, 1990.

1) Bernard Brandon Scott et al., *Reading New Testament Greek* (Peabody: Hendrickson, 1993), 53.

11) Scott et al., *Reading New Testament Greek*, 42.

Scott, Bernard Brandon, Margaret Dean, Kristen Sparks, and Frances LaZar. *Reading New Testament Greek*. Peabody: Hendrickson, 1993.

(4) 저자의 이름을 전혀 알 수 없을 경우

1) *The Lottery* (London: J. Watts [1732]), 20-25.

11) *The Lottery*, 25.

The Lottery. London: J. Watts, [1732].

(5) 저자의 이름이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을 경우

1) [Henry K. Blank], *Art for Its Own Sake* (Chicago: Nonpareil Press, 1910), 8.

11) [Blank], *Art for Its Own Sake*, 22.

[Blank, Henry K.]. *Art for Its Own Sake*. Chicago: Nonpareil Press, 1910.

(6) 저자의 이름이 가명인 경우 (본명을 꺾쇠 안에 표기)

1) Mrs. Markham [Elizabeth Cartrigth Penros], *A History of France* (London: John Murray, 1872), 9.

11) Markham, *A History of France*, 13.

Markham, Mrs. [Elizabeth Cartrigth Penros]. *A History of France*. London: John Murray, 1872.

(7) 저자가 기구, 단체일 경우 (저, 편, 편역)

1) 한국 기독교사 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70.

11) 한국 기독교사 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65.

한국 기독교사 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1) 도서출판 두란노 편,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24.

11) 도서출판 두란노,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30.

도서출판 두란노 편.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Young Adult Service Division, Services Statement Development Committee.

Directions for Library Service to Young Adult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8) 편집자가 한 사람인 경우/ 편집자가 저자인 경우

1) 김세윤 (편),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25.

11) 김세윤, *예수와 바울*, 30.

김세윤 (편).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또는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Note: 편집자가 저자인 경우에는 (논문 모음집) 굳이 (편) 혹은 ed.를 밝히지 않아도 됨.

1) Gerald H. Anderson, ed.,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1), 15.

11) Anderson,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23.

Anderson, Gerald H., ed.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1.

(9) 편집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1) Robert A. Kraft and George W. E. Nickelsburg, eds.,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1986), xii.

11) Kraft and Nickelsburg,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15.

Kraft, Robert A., and George W. E. Nickelsburg, eds.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1986.

** 이 책의 경우 Scholars Press 와 공동출판되었지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출판사 하나만 밝혀주어도

된다.

(10) 한 저자의 책이 다른 사람에 의해 번역되었을 경우

1) Andrew Murray, 하나님의 치유, 이희숙 역 (서울: 나침반, 1985), 66.

11) Murray, 하나님의 치유, 80.

Murray, Andrew. 하나님의 치유. 이희숙 역. 서울: 나침반, 1985.

黑崎幸吉, 마태복음. 광철영 역. 서울: 제일출판사, 1962.

1) Wilhelm Egger, *How to Read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and Historical-Critical Methodology*, trans. P. Heinegg (Peabody: Hendrickson, 1996), 28.

11) Egger, *How to Read the New Testament*, 30.

Egger, Wilhelm. *How to Read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and Historical-Critical Methodology*. Translated by P. Heinegg. Peabody: Hendrickson, 1996.

1) Henry Chadwick, 초대교회사 (*The Early Church*),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11-15.

11) Chadwick, 초대교회사, 15.

Chadwick, Henry. 초대교회사 (*The Early Church*).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Note: 각주에서 번역서적을 처음 인용할 경우 원서의 제목을 괄호 안에 밝혀준다. 그러나 두 번째 언급 때부터는 한글 제목표기만 한다.

(11) 저자의 책이 같은 제목의 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W. G. T. Shedd, ed., *The Complete Works of Samuel Taylor Coolidge*, vol. 1, *Aids to Reflection* (New York: Harper & Bros., 1884), 18.

* 사실상 책이라 할 수 있지만, 시리즈의 한 단편 논문처럼 표현을 해야 하는 경우

1) Walter W. Wessel, "Mark,"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93.

11) Wessel, "Mark," 196.

Wessel, Walter W. "Mark." Pages 193ff.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저자의 책이 시리즈 중 하나일 경우

1) 고신석, 이성유, 채기현, 인도의 종교사상과 기독교선교, 선교학총서 4 (개정 2 판; 전주: 선교정책연구소, 1985), 7.

11) 고신석 외, 인도 종교사상과 기독교선교, 11.

고신석, 이성유, 채기현. 인도의 종교사상과 기독교선교. 선교학총서 4. 개정 2 판. 전주: 선교정책연구소, 1985.

박윤선. 공관복음. 박윤선 성경주석시리즈. 3 판. 부산: 성문사, 1957.

Issawi, Charles. *The Economic History of Turkey, 1800-1914*. Publications of the 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 1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13) 부제가 있을 경우

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156.

1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170.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14) 책이나 논문의 제목 안에 책 제목이 들어갈 경우

1) 변승철, 아우구스틴의 “신국론” 연구 (대전: 기독교문화연구소, 1984), 59.

11) 변승철, 아우구스틴의 “신국론” 연구, 60.

변승철. 아우구스틴의 “신국론” 연구. 대전: 기독교문화연구소, 1984.

Forte, Allen. *The Harmonic Organization of “The Rite of Spr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8.

** 논문제목 내에서 책 제목이 언급될 경우는 책 제목을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15) 한 저자의 같은 제목의 책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

1) 김철손, 기독교사상강좌, vol. 2,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이적과 신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278.

11) 김철손,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이적과 신앙, 278.

김철손. 기독교사상강좌. Vol. 2.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이적과 신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16) 여러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편집 서적의 경우

[1] 논문 저자를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할 때

1) 이만열, “한국교회는 어디로?,” 한국교회와 신학은 어디로? 기독교 학술원 편 (서울: 백합출판사, 1984), 74.

또는

1) 이만열, “한국교회는 어디로?,” 기독교 학술원 편, 한국교회와 신학은 어디로?(서울: 백합출판사, 1984), 74.

11) 이만열, “한국교회는 어디로?,” 73.

기독교 학술원 편. 한국교회와 신학은 어디로? 서울: 백합출판사, 1984.

이만열. “한국교회는 어디로?,” 한국교회의 신학은 어디로? 기독교 학술원 편. 서울: 백합출판사, 1984, 71-85.

박기호. “선교현지에서 한인 선교사의 사역 현황 및 역할.” 임종표 편. 한국 선교의 반성과 그 준비. 서울: 누리콤, 1991, 19-42.

*Note: 한글 편집서적의 경우, 개별 논문이 논문의 논지를 위해 중요하게 토론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개별 논문을 참고 문헌에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함.

1) Mary Higdon Beech, “The Domestic Realm in the Lives of Hindu Women in Calcutta,” in Hanna Papnanek and Gail Minault, eds., *Separate Worlds: Studies of purdah in South Asia*, Delhi: South Asia Books, 1982), 110-38.

11) Beech, “The Domestic Realm in the Lives of Hindu Women in Calcutta,” 111.

Beech, Mary Higdon. “The Domestic Realm in the Lives of Hindu Women in Calcutta.” Pages 110-38 in *Separate Worlds: Studies of purdah in South Asia*. Edited by Hanna Papnanek and Gail Minault. Delhi: South Asia Books, 1982.

[2] 논문 저자를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때

1) 고진석 편, *중국선교의 전망* (전주: 선교정책연구소, 1989), 67-78.

11) 고진석 편, *중국선교의 전망*, 70.

고진석 편. *중국선교의 전망*. 전주: 선교정책연구소, 1989.

Edmunds, Vincent, and Scorer Gordon, eds. *Some Thought on Faith Healing*. London: The Tyndale Press, 1965.

(17) 개정판 (Revised; expanded; more than 2nd edition)의 경우

1) 고진석, 이성유, 채기현, 인도의 종교사상과 기독교선교, 선교학총서, vol. 4 (개정 2 판; 전주: 선교정책연구소, 1985), 101-111.

11) 고진석, 이성유, 채기현, 인도의 종교사상과 기독교선교, 120.

고진석, 이성유, 채기현. 인도의 종교사상과 기독교선교. 선교학총서. Vol. 4. 개정 2 판. 전주: 선교정책연구소, 1985.

(18) 재판 (Reprinted edition)의 경우

1) 임진철, 코메니우스의 생애와 사상 (재판; 대구: 봉명문화사, 1988), 127-138.

11) 임진철, 코메니우스의 생애와 사상, 130.

임진철. 코메니우스의 생애와 사상. 재판. 대구: 봉명문화사, 1988.

1) Neil Harris, *The Artist in American Society: The Formative Years, 1790-1860*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6; rep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hoenix Books, 1982), 43-44.

11) Harris, *The Artist in American Society*, 45.

Harris, Neil. *The Artist in American Society: The Formative Years, 1790-1860*.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6. Rep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hoenix Books, 1982.

(19) 보고서 (Published reports)의 경우

[1] 개인에 의한 보고서

1) B. G. F. Cohen, *Human Aspects in Office Automation* (Cincinnati: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ivision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Science, 1984), 150, NTIS, PB84-240738.

[2] 단체 또는 기관, 위원회에 의한 보고서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연구보고서 (1957), 31.

11)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보고서, 4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57.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Bangkok Assembly 1973*. Geneva: WCC, 1973.

(20) 연감 (Yearbooks)의 경우

1) 선교연감 1988 (전주: 선교정책연구소, 1989), 189-203.

11) 선교연감 1988, 211.

선교연감 1988. 전주: 선교정책연구소, 1989.

Paxton, John, ed. *The Statesman's Yearbook 1976/1977*. London: Macmillan Press, 1976.

(21)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 신문이나 잡지의 글의 경우

[1] 학술지 (Journal)에 수록된 논문

1) 박봉배, “이용도의 사랑의 신비주의와 그 윤리성,” 신학과 세계 4 (1978): 59.

11) 박봉배, “이용도의 사랑의 신비주의와 그 윤리성,” 6.

박봉배. “이용도의 사랑의 신비주의와 그 윤리성.” 신학과 세계 4 (1978): 50-66.

1) S. G. Wilson, “Gentile Judaizers,” *New Testament Studies* 38 (1992): 611.

11) Wilson, “Gentile Judaizers,” 615.

Wilson, S. G. “Gentile Judaizers.” *New Testament Studies* 38 (1992): 605-616.

[2] 잡지 (Magazine)에 수록된 논술, 기사

1) 서광선, “탈 종교성과 민중의식,” 월간조선, 1982년 6월호, 176-187.

11) 서광선, “탈 종교성과 민중의식,” 175.

서광선. “탈 종교성과 민중의식.” 월간조선. 1982년 6월호, 176-187.

방선기. “제자훈련의 핵심원리.” 목회와 신학. 1990년 7월호, 210-230.

*Note: 목회와 신학; 그 말씀; 큐티와 만나; 신학 사상; 교육 교회; 월간 고신 등도 동일하게 다름 (가끔 통권 표기법으로 인해 혼선이 생기기도 하는데, 학술지보다는 월간지로 규정하고 통권 표기를

강조하지 않음).

1) Michael Meyer, "East Europe's Reform Franzy," *News Week*, 6 November 1989, 28-29.

11) Meyer, "East Europe's Reform Franzy," 28.

Meyer, Michael. "East Europe's Reform Franzy." *News Week*. 6 November 1989, 28-29.

[3] 학위 논문 (Dissertation)

1) 이종수, "한인 이민교회 분열의 원인 분석과 그 해결책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75-76.

11) 이종수, "한인 이민교회 분열의 원인 분석과 그 해결책에 관한 연구," 90.

이종수. "한인 이민교회 분열의 원인 분석과 그 해결책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1) Thomas R. Schreiner, "Circumcision: An Entr?e into 'Newness' in Pauline Thought" (Ph. D. diss., Fuller Theolical Seminary, 1982), 50.

11) Schreiner, "Circumcision," 54.

Schreiner, Thomas R. "Circumcision: An Entr?e into 'Newness' in Pauline Thought." Ph. 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2.

[4] 신문에 게재된 글

1) 김해중, "미주한인교회와 한인사회," 미주 크리스찬헤럴드, 1985년 2월 22일자, 3.

11) 김해중, "미주한인교회와 한인사회," 3.

김해중. "미주한인교회와 한인사회." 미주 크리스찬헤럴드. 1985년 2월 22일자.

1) "The Death-of-God Theology," *New York Times*, 17 March 1965, Sec. 4, R1.

11) *New York Times*, 17 March 1965, Sec. 4, R1.

The Death-of-God Theology." *New York Times*. 17 March 1965, Sec. 4, R1.

(22) 신학 사전이나 백과 사전에 수록된 논문

1) M. J. Shroyer, "Silas,"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vol. 4 (New York: Abingdon, 1962), 352.

11) Shroyer, *IDBE*, 4:352. (약어 사용) 혹은

11) Shroyer, "Silas," 352.

Shroyer, M. J. "Silas." Pages 350-352 in vol.4 of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New York: Abingdon, 1962.

1) Joseph H. Thayer, "ekkleisia," *성서 원어대전: 신약사전 (The Biblical Word Study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7 (서울: 한국성서연구원, 브니엘 출판사: 1988), 301.

11) Thayer, *성서 원어대전: 신약사전*, 7:302.

Thayer, Joseph H. "ekkleisia." *성서 원어대전: 신약사전 (The Biblical Word Study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7. 서울: 한국성서연구원, 브니엘 출판사: 1988, 301-303.

* 사전이나 백과사전, 신학 사전의 경우 두 번째 언급 때부터는 단편논문의 저자와 사전의 이름만 밝힌다 (*SBL Handbook of Style*). 그리고 참고 문헌에는 사전명만 실어도 좋다 (cf. *SBL Handbook of Style*).

*Note: 사전 내 단편 논문의 저자 이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신학용어사전, 최윤설, 정기철 공편 (대구: 대경출판사, 1980), s.v. "창조론," 67.

최윤설, 정기철 공편. 신학용어사전. 대구: 대경출판사, 1980.

이성호 편. 새성서대사전. 서울: 지혜사, 1983.

(23) 학술지나 신문에 있는 평론 (Review)의 경우

1) Howard M. Teeple, review of A. Robert and A. Feuillet,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JBR* 34 (1966): 368- 370.

11) Teeple, review of Robert and Feuillet, 369.

Teeple, Howard M. Review of A. Robert and A. Feuellit,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34 (1966): 368-370.

또는

1) Howard M. Teeple, review of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by A. Robert and A. Feuellit, *JBR* 34 (1966): 368-370.

*별도의 제목을 가진 평론의 경우

1) Jaroslav Pelikan. "The Things That You're Liable to Read in the Bible" (review of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Times Review of Books*, December 20, 1992, 3.

11) Pelikan, "The Things That You're Liable to Read in the Bible," 3.

Pelikan, Jaroslav. "The Things That You're Liable to Read in the Bible" (review of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Times Review of Books*, December 20, 1992, 3.

또는

1) Jaroslav Pelikan. "The Things That You're Liable to Read in the Bible," review of *The Anchor Bible Dictionary*, ed. by David Noel Freedman, *New York Times Review of Books*, December 20, 1992, 3.

(24) 대담 (Interview)의 경우

1) John Fowles, "A Conversation with John Fowles," interview by Robert Foulke (Lyme Regis, 3 April 1984),

Salmagundi, no. 68-69 (Fall 1985-Winter 1986): 370.

11) Fowles, "A Conversation with John Fowles," 370.

Fowles, John. "A conversation with John Fowles." Interview by Robert Foulke. Lyme Regis, 3 April 1984.

Salmagundi. nos. 68-69 (Fall 1985-Winter 1986): 367-84.

1) Ralph N. Neighbour, Jr.,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권두대담: 셀교회 정신이 중요합니다,” 장병두, 박삼열 대담, 목회와 신학, 2001 년 3 월호, 32.

Neighbour, Ralph N., Jr.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권두대담: 셀교회 정신이 중요합니다.” 장병두, 박삼열 대담. 목회와 신학, 2001 년 3 월호. 32-40.

* 미출판 인터뷰

1) 김병두, “김병두 목사와의 인터뷰,” 대담 강기수 (서울, 2001 년 7 월).

Spock, Benjamin, Interview by Milton J. E. Senn, 20 Nov 1974. Interview 67A, transcript. Senn Oral History Collectio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Bethesda.

Washington, Harold, mayor of Chicago. Interview by author, 23 September 1986. Tape recording. Chicago Historical Society, Chicago.

(25) 강의나 설교 (Speech, lecture, sermon)의 경우

1) 김세윤, “목회자를 위한 성경신학”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2001).

1) Eulogy of Charles V in Latin, apparently written at the monastery of St. Just, Spain, [ca. 1500], Special Collections, Joseph Regenstei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Eulogy of Charles V. In Latin, apparently written at the monastery of St. Just, Spain, [ca. 1500]. Special Collections, Joseph Regenstei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Audio tape 의 경우

1) Paul Cho, “Recruiting Staff for a Target Church,” Audio Tapes 1, 2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4). Cho, Paul. “Recruiting Staff for a Target Church.” Audio Tapes 1, 2.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4.

*설교의 경우

1) 홍길동, “하늘을 사는 사람 (1)” (주일설교, 그리스도의 교회, 2010 년 1 월 30 일)
홍길동. “하늘을 사는 사람 (1).” 주일설교, 그리스도의 교회, 2010 년 1 월 30 일.

*강의안의 경우:

1) 김세윤, 목회자를 위한 성경 신학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1997), 14.

11) 김세윤, 목회자를 위한 성경 신학, 15.

김세윤. 목회자를 위한 성경 신학.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1997.

*세미나 강의집에 있는 강의안 인용시.

1) 이계준, “교회 갱신과 복음설교,” 연신원 목회자 세미나 강의집, vol. 1 (1981): 203.

11) 이계준, “교회 갱신과 복음설교,” 204.

이계준. “교회 갱신과 복음설교.” 연신원 목회자 세미나 강의집. Vol. 1. 1981. 202-220.

(26) 재인용의 경우

1) Louis Zukofsky, “Sincerity and Objectification,” *Poetry* 37 (Feb. 1931): 269, quoted in Bonnie Costello, *Marianne Moore: Imaginary Possess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78.

11) Zukofsky, “Sincerity and Objectification,” 270, quoted in Costello, *Marianne Moore*, 78. Zukofsky, Louis. “Sincerity and Objectification.” *Poetry* 37 (Feb. 1931): 269. quoted in Bonnie Costello, *Marianne Moore: Imaginary Possessions*, 7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1) Oswald T. Allis, *God Speaks by Moses* (Nutely: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er, 1958), 12. 허달수, “한국 교회 해외선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7)에서 재인용.

(27) 세미나나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1) Susan Niditch, “Oral Culture and Written Docum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ew England Region of the SBL, Worcester, Mass., 25 March 1994), 13-17.

11) Niditch, “Oral Culture and Written Documents,” 14.

Niditch, Susan. “Oral Culture and Written Docum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ew England Region of the SBL, Worcester, Mass., 25 March 1994.

(28) 인터넷 자료

[1] 출판된 매체의 인터넷 정보를 인용할 경우

1) Charles Truehart, "Welcome to the Next Church," *Atlantic Monthly* 278 (August 1996): 37-58. Cited 5 May 1997. Online: <http://www.theatlantic.com/atlantic/issues/96aug/nxtchrch/nxtchrch.htm>.

11) Threhart, "Welcome to the Next Church," 37.

Truehart, Charles. "Welcome to the Next Church." *Atatlantic Monthly* 278 (August 1996): 37-58.

Cited 5 May 1997. Online: <http://www.theatlantic.com/atlantic/issues/96aug/nxtchrch/nxtchrch.htm>.

1) "기사제목," 조선일보, 1999년 8월 25일자, 국제면. 2000년 4월 인용. Online: http://www.chosun.com/...../*.htm.

11) "기사제목," 조선일보, 1999년 8월 25일자. 국제면.

"글제목." 조선일보. 1999년 8월 25일자. 2000년 4월 인용. Online: http://www.chosun.com/...../*.htm.

[2] 출판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를 인용할 경우

1) Matthew Thomas Farrell, "History of the Discovery of Thomas and Comments on the Text," n.p. [cited 5 May 1997] Online: <http://www.miseri.edu/davies/thomas/frarrell.htm>.

11) Farrell, "History of the Discovery of Thomas and Comments on the Text," n. p.

Farrell, Matthew Thomas. "History of the Discovery of Thomas and Comments on the Text."

No publisher. Cited 5 May 1997. Online: <http://www.miseri.edu/davies/thomas/farrell.htm>.

10. 일반적인 약어들 (외국서적 참고를

위해) ca. (circa): about, approximately;

약, 대략

cf. (confer): compare; 비교, 참조

e.g. (exempli gratia): for example; 예

etc. (et cetera): and so forth; 등등

ibid. (ibidem): in the same place; 같은 책

id. (idem): the same; 같은 저자; 동저자

i.e. (id est): that is; 다시 말해, 말하자면

n. (note): note, footnote; 주석, 각주 (여러 각주를 언급할 경우 nn.)

n.d. (no date): 출판연도 미상

n.p. (no publisher): 출판사

미상 no. nos.; number

numbers; 번호 passim: here

and there; 여러군데 sic: so,

thus; 그러므로, 따라서 supra:

above; 위

s.v. (sub verbo; sub voce): 백과사전 등에서 ‘가나다’라는 단어에 대한 글을 특별히 주목하기를 요구할 때

(복수의 경우 s.vv.)

trans. (translator; translated

by): 역 viz. (videlicet):

namely; 다시 말해 vol.

(volume): 권.

11. 자주 틀리는 맞춤법

맞는 말

틀린 말

그러므로 그럼으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 빨리 마치자. 그리고 나서 밥 먹으로

가자.) 불리다 불리우다

비로소 비로서

알맞은 알맞는

용서치 용서지

생각지 생각치

자주 혼동하여 사용하는 표현들

하므로/ 함으로(써) 원인/ 수단

…하는데/ 하는 데 서술문/장소 여격

으로서/ 으로서 자격/수단

부록:
논문작성 방법론에 관한 참고도서

- 강맹규. 논문작성 지침. 청문각, 1998.
- 고려대출판부 편. 인문 사회계 논문작성법. 고려대출판부, 1995.
- 김기홍. 논문작성, 이렇게 하라. 개정증보판, 시대의창, 2000.
- 나상갑 편. 논문작성법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2.
- 연세대 대학원 편. 논문작성법. 연세대 출판부, 1991.
- 이강현 외. 논문작성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1998.
- 임인재. 논문작성법: 인문 사회 편. 서울대 출판부, 1993.
- 최수일. 논문 작성 이렇게 해라. 서울: 이레닷컴, 2004.
- 한이신. 논문작성법: 학위논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논문작성과 컴퓨터. 대한기독교서회, 1990
- Thomas K. Matthew, *Ministry Research Simplified: A Guide for D. Min. Candidates Pursuing Quantitative Research*, 2000.
- William Myers, *Research in Ministry: A Primer for the Doctor of Ministry Program*, Exploration Press, 1993.
- Nancy T. Ammerman et al, ed., *Studying Congregations: A New Handbook*, Abingdon, 1998.
- James D. Whitehead et al, *Methods in Ministry: Theological Reflection and Christian Ministry*, Revised Edition, Sheed & Ward, 1995.
- Nancy Jean Vyhmeister, *Quality Research Papers for Students of Religion and Theology*, Zondervan, 2001.
- Patricia O'Connell Killen et al, *The Art of Theological Reflection*, Crossroad, 1994.
- Larry Vandecreek et al, *Research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Journal of Pastoral Care Publications, 1994.
- Kjell Erik Rudestum et al, *Surviving Your Dissertation: A Comprehensive Guide to Content and Process*, Second Edition, Sage Publication, 2001.
- John C. Sayre, with Roberta Hamburger, *a Manual of Forms for Research Papers and D. Min. Field Project Reports*, 5th edition, Seminary Press, 1991.
- Roberta Hamburger, *Pgs Style Guide for Master's Thesis and D. Min. Project Reports*, Seminary Press, 1994.
- Richard Davies, *Handbook for Doctor of Ministry Projects*, Univ. Press of America, 1984.
- Allen G. Glatthorn, *Writing Winning Dissertation: A Step-By-Step Guide*, Corwin Press, 1998.
- David and Grace Gardner, *Dissertation Proposal Guidebook: How To Prepare a Research Proposal and How to Get It Accepted*, Charles C. Thomas Publication, 1980.
- Lawrence F. Locke et al, *Proposal That Work: A Guide for Planning Dissertation and Grant Proposals*, Sage Publication, 2000.
- Murray Thomas et al, *Avoiding Thesis and Dissertation Pitfalls: 61 cases of problems and*

solutions, Bergin & Garvey, 2001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is, and Dissertations*, Sixth Edition, Univ. of Chicago Press, 1996

졸업논문 제출 및 평가 타임라인

	주심 평가용 최종 논문	부심 평가용 최종 논문	논문 최종본	문체/양식 교정
제출처	kadmin@fuller.edu	kadmin@fuller.edu	kadmin@fuller.edu	kadmin@fuller.edu
제출시 필요한 서류	논문지도서 논문 전자파일	논문, 논문평가서 (주심), 주심 평가에 따른 수정보고서	논문평가서 (주심, 부심), 논문, 부심 평가에 따른 수정보고서	부심이 최종 승인한 논문파일
제출 마감일	1/15(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3/1	5/1	5/25
필요한 행정 조치	접수 후 1 주일 내로 주심에게 인계함 (책임자: Secretary)	KDMin 교수회에서 배정한 부심에게 개정본을 인계함 (책임자: Theol. Mentor)	학생이 부심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이에 대한 부심의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 (책임자: Theol. Mentor).	논문파일을 문체교정자 (Style editor)에게 인계하여 문체 및 양식 교정 작업 (책임자: Theol. Mentor). 교정비용 청구 및 지급 (책임자: Secretary)
논문 평가	2/10 까지 주심평가 완료. 사무실로 주심 논문평가서를 제출.	4/25 까지 부심 평가 완료. 사무실로 부심 논문평가서를 제출.	5/20 까지 Approval Sheet 을 회람하여 주심, 부심의 사인을 받음	문체교정자는 6/5 까지 교정완료하여 Theol. Mentor 에게 제출.

(Updated: 9/28/2020)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gram

논문제안서 자가진단법

- 1. 논문 주제는 자기 목회상황에서 발생한 실천적이며 절실한 관심사인가?
- 2. 논문 제목은 학술적이고 구체적이며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가?
- 3. 참고문헌이 모두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 4. 참고문헌은 모두 논문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 5. 참고문헌을 40 종을 엄선하여 제시했는가?
- 6. 박사논문 10 편에 대한 논문비평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
- 7. 독서보고서의 핵심도서 7 종은 논문작성에 가장 핵심적이고 학술적인 것인가?
- 8. 핵심도서 7 종을 모두 정독하고 독서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
- 9. 독서보고서는 책의 내용을 복사하지 않고 모두 자기 글로 정리되었는가?
- 10. 독서보고서는 1 문헌 당 1 매 전체 혹은 그 이상인가?
- 11. 제안문에는 논문 주제를 선정한 개인적, 목회적 동기가 분명히 설명되었는가?
- 12. 제안문에는 논문 주제의 목회적, 실천적 중요성이 설득력있게 부각되었는가?
- 13. 제안문에는 연구 과제와 주요논지가 분명히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14. 제안문에는 연구도 하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리는 잘못된 언급은 없는가?
- 15. 제안문에는 탐구정신과 연구에 대한 열정적 기대가 반영되었는가?
- 16. 제안문에는 연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가?
- 17. 제안문에는 전개방법론과 그러한 전개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
- 18. 목차는 첨부되었는가?
- 19. 목차는 제안문의 연구과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 20. 목차는 이론, 상황분석, 대안제시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가?
- 21. 코스웍에 대해 과제물을 제출하고 점수를 받은 학점이 24 학점(+ 추가학점수)이 넘는가?
- 22. 논문웍샵(DM748)을 등록 수강했는가?
- 23. 논문제안서는 4 부를 만들어 준비했는가?
- 24. 논문제안서는 본 박사원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가?

이상 24 질문에 대해 모두 그렇다는 체크가 되면 논문제안서를 제출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gram

논문작성 자가진단법 (장)

- 1. 본 장의 분량은 전체 논문에서 적당한가?
- 2. 본 장은 논문의 결론(대안제시)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가?
- 3. 본 장은 앞 장과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 4. 본 장의 서두에서는 논문전개에서 본장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는가?
- 5. 본 장의 서두에서는 본장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 6. 본 장은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목적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7. 본 장의 각 절도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목적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8. 본 장의 각 절은 마지막에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는가?
- 9. 본 장은 마지막에 각 절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본 장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는가?
- 10. 본 장은 마지막에 다음 장으로의 연결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 마감하였는가?
- 11. 본문에서 설교나 수필 같이 자기 생각을 근거 제시 없이 주장한 곳은 없는가?
- 12. 각주는 충분하며 필요한 곳에 각주가 생략된 곳은 없는가?
- 13. 본문에서 논리적인 연결이 단절된 곳은 없는가?
- 14. 공신력 있는 원 자료가 아닌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15. 근거와 각주는 모두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것인가?
- 16. 각주에는 본인이 직접 읽고 참고한 책만을 기록하였는가?
- 17. 대립되는 견해들을 도입하여 비교 토론하지 않고 하나의 견해만을 서술하지 않았는가?
- 18. 비판적 평가 없이 서술만 한 곳은 없는가?
- 19. 호의적인 언급들을 나열만 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곳은 없는가?
- 20. 예화나 이야기는 없는가?
- 21. 논리 전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잔소리는 없는가?
- 22. 논문은 본 박사원의 양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가?
- 23. 제목이나 문단 들여쓰기를 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양식 스타일로 하였는가?
- 24. 철저히 맞춤법 띄어쓰기를 점검하였는가?
- 25. 타인의 글을 인용하고 따옴표를 하지 않은 곳은 없는가?
- 26. 타인의 글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하고 각주를 달지 않은 곳은 없는가?
- 26. 핵심적인 문장만 인용하지 않고 문맥까지 너무 길게 인용한 곳은 없는가?
- 27. 성구를 길게 인용한 곳은 없는가?

각 장 별로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기 전에 위 질문들에 대해 체크를 한 후에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이를 수정 보완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SOT KDMin 논문작성관련 학칙 안내(학생용)

1. 논문의 내용과 양식은 본 프로그램이 발행한 목회학박사학위 논문작성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2. 부록을 제외한 논문 전체의 분량이 100-150 페이지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논문 전체의 분량이 100 페이지 미만이거나 150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KDMin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적인 졸업(학위증 신청 및 취득)은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졸업신청을 하는 경우 매 학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년 6 월 둘째 주간에 있는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 2 월 1 일까지 10 개월 간 총 6 회 논문지도를 받아 완성한 논문을 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논문/졸업행정 타임라인

	주심 평가용 최종 논문	부심 평가용 최종 논문	논문 최종본	문체/양식 교정
제출처	kadmin@fuller.edu	kadmin@fuller.edu	kadmin@fuller.edu	kadmin@fuller.edu
제출시 필요한 서류	논문지도서 논문 전자파일	논문, 논문평가서 (주심), 주심 평가에 따른 수정보고서	논문평가서 (주심, 부심), 논문, 부심 평가에 따른 수정보고서	부심이 최종 승인한 논문파일
제출 마감일	1/15(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3/1	5/1	5/25
행정 절차	접수 후 1주일 내로 주심에게 인계함	KDMin 교수회의에서 배정한 부심에게 개정본을 인계함	학생이 부심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이에 대한 부심의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	논문파일을 문체교정자에게 인계하여 문체 및 양식 교정 작업
논문 평가	2/10 까지 주심평가 완료. 사무실로 주심 논문평가서를 제출.	4/5 까지 부심 평가 완료. 사무실로 부심 논문평가서를 제출.	5/20 까지 Approval Sheet 을 회람하여 주심, 부심의 사인을 받음	문체교정자는 6/5 까지 교정완료하여 Theol. Mentor 에게 제출.

4. 논문지도는 면담을 통한 지도, 이메일지도, 이메일과 전화를 겸한 지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지도교수의 판단 하에 지도교수와 학생 모두의 여건과 상황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 (1) (a) 지도교수가 학생이 제출한 논문 chapter 를 읽는 시간(1 시간 이상)과 (b) “면담하여 논문에만 집중하여 지도한” 시간 혹은 논문에 대한 코멘트를 이메일로 작성하는 시간(최소 30 분 이상)을 합하여 2 시간 혹은 그 이상을 소요한 경우 이를 1 회 지도로 간주합니다.
 - (2)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논문의 부분에 대한 간단한 문의와 답변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1 회 지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5. 총 6 회 논문지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 1 회: **논문제안서에 대한 심사 및 수정**
 - 물리적인 거리나 상호간의 스케줄상의 이유로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번째 지도는 면담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첫 지도에서 논문지도교수로부터 제안서의 논문 제목, 연구 동기과 목적, 주요논지, 의의, 연구방법론, 목차, 참고문헌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지도교수가 원래의 제안서에 대해 별다른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 제안서 대로 논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 코멘트를 따라 수정하여 우편(혹은 이메일)으로 다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지도교수가 최종 승인을 하는 경우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따라 논문을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지도교수가 수정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최종승인하는 경우 이 최종 승인본을 이메일로 사무실(kadmin@fuller.edu; fullerdmin@unitel.c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2-6 회: **서론에서 결론까지의 내용을 장별로 지도 받음**
 - 학생은 5 회 지도를 통해 논문 전체를 작성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분량을 가능하면 균등하게 나누고 완성한 부분을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순서를 따라 지도교수에게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단, 지도교수가 허락하는 경우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새롭게 제출하는 내용은 30 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전에 이미 지도 받아 수정하여 제출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시 쓰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내용은 30 페이지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정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은 지도교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제출된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논문 프린트본의 여백에 직접 코멘트한 것을 학생에게 면담,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수정 사항을 글로 정리하여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6. 매 회 지도를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문지도서 양식에 지도받은 내용을 회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해당 트랙 사무실 (kadmin@fuller.edu, fullerdmin@unitel.co.kr)과 지도교수에게 동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논문작성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비를 지급하거나 논문단계 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 회수나 지도 내용에 있어 지도교수와 학생 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을 때 프로그램에서 중재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7. 논문은 제안서에 대해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첫 지도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최소한 10 개월간 6 회의 지도를 받아 완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졸업행정 타임라인에 적용하자면, 6 월 졸업식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논문제안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고, 늦어도 4 월에는 1 회 지도를 받아야 다음 해 2 월 1 일까지 완성본을 접수하여 졸업식 참석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8. 10 년 졸업시한에 맞추기 위해 혹은 논문작성을 위해 교회에서 특별히 안식개월을 허락받아 몇 개월 동안 논문 작성에 집중하여 지도교수(주심)에게 6 회 지도를 충실히 받으며 논문을 완성하였으나 사전 준비 기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실제 작성기간은 총 10 개월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여 논문 평가 단계로 넘길 것인지와 졸업식 참석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서울과 파사데나의 두 논문업무 관장 교수들이 지도교수와 협의 하에 주로 완성된 논문의 질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단, 논문작성 기간이 총 6 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을 분명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 졸업시한이나 기타 사역 스케줄 상의 이유로 지도교수에게 논문작성 기간이나 논문평가와 관련하여 시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시한이나 이로 인한 논문작성 스케줄과 관련된 문의나 상담은 반드시 논문업무 관장 교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0. 6 회의 지도를 통해 논문을 완성하고 지도교수(주심)가 평가를 위해 논문을 제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경우 반드시 프린트한 완성본을 사무실로 제출하여 공식적인 주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1. 6 회 지도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였으나 지도교수가 통과 할 만큼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나 논문의 분량이 많아 6 회 이상의 지도가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추가적인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6 회 이상의 지도를 받으시는 경우 완성본을 사무실에 제출할 때 6 회를 초과하는 회수에 대해 추가 논문지도비도 함께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회당 80 블).
 12. 논문 평가에서 중요한 수정요구사항이 2 가지 이상이면 통과(Pass)의 판정을 받더라도 조건부 통과로 간주합니다. 이는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원 평가자가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때 통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서에 수정 요구사항을 받으시면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수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3. 논문평가에서(특히 부심평가) 일부 장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거나 논문의 장 구조를 바꾸는 등의 상당한 주요한 수정이 필요하여 “재제출(resubmit)”의 판정을 받는 경우 수정본을 제출하여 1 회에 한해 재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주심)의 지도 하에 부심의 수정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실히 수정하시고 논문수정본과 수정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재평가비(200 불)도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14. 학위 과정 중에는 과목 담당교수나 논문지도교수, 학교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이나 선물을 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화에서 학교의 직원이나 교수에게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풀러신학교를 포함한 미국 학교들의 관행이 아닐 뿐더러 때로는 당사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므로 교수회의 토론을 거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으니 이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pdate: 1/31/2013)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The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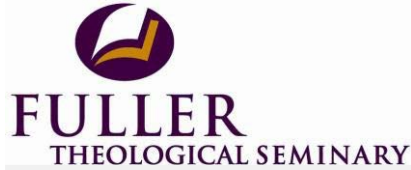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gram

논문지도서

학생 성명	지도 회수	논문지도 일시	지도 범위 (장 혹은 면수)
지도교수 서명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아래에 이름을 타이핑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내용 및 수정 지시사항[지시사항은 번호를 부여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gram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 Min. Final Project Examiner Report

목회학박사

후보자:

논문제목:

심사자:

서명:

일시:

평가마감시한:

상기 논문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 질적으로 우수하고 학문적/실천적 가치가 있어
Dissertation 으로 추천함.
 제본된 논문을 증정받기 원함.
 통과 조건부 통과 재제출 불합격

* 위와 같이 평가한 사유와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코멘트:

*여백이 모자라면 별지에 평가 내용을 첨부하셔도 됩니다.